

합니다. 射擊을 가하면서 강행 돌파하니까 여기에 있던 「팀」이 이 「미니버스」와 交戰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거기서 制壓이 되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報告를 들어보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死亡者가 16名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生存者가 앞서 말씀하신 나이 어린 여학생인 것 같습니다. 여자 한 사람이 生捕되었다. 그리고 負傷을 당했다. 이러한 報告를 나중에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女學生을 저희들이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 그 女子를 후송을 해가지고 나중에 치료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기서 鹵獲되었던 것이 「칼빈」小銃한 10餘挺... 한 열다섯挺인가 열 두서너挺 「칼빈」小銃을 거기서 회수를 했고 實彈多數를 회수한 이러한 狀況이 되겠습니다.

李委員님 되겠습니까?

○李靑珪委員 그때 당시 銃을 어디서 먼저 쏘았어요?

○證人 崔 雄 물론 「미니버스」가 쏘았지요 檢問에 응하지 않고 強行突破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李靑珪委員 거기 部隊 要員들은 몇명이 있었습니까?

○證人 崔 雄 여기에 1個 「팀」이니까 한 10명정도 되겠습니다.

乘客 말씀입니까?

○李靑珪委員 아니. 戒嚴軍이...

○證人 崔 雄 戒嚴軍은 이 「미니버스」와 交戰이 붙었던 戒嚴軍은 1個 「팀」 다시 말씀드려서 10명정도가 되겠습니다.

○李靑珪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다시 말이지요. 이것은 5月24日 14時頃 松岩洞 孝泉驛 부근에서 教導隊兵力과 11空輸旅團 兵力間의 誤認射擊이 있을 후 武裝示威隊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良民을 학살했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설명해 보시지요

○證人 崔 雄 예. 이것도 要圖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光州聽聞會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됐었던 저희들은 孝泉驛... 알기쉽게 孝泉驛의 誤發誤認事故로 보고 있구요 松岩洞

이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을이 이렇게 있고 이것은 光州로부터 羅州로 빠지는 길입니다.

여기에 鐵道가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놓여 있고 요양에 孝泉驛이 있고 마을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湖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湖水로부터 貯水池로부터 여기까지는 약 1km 이렇게 되겠고 教導隊 步兵學校教導隊가 여기서 道路封鎖作戰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5月 24日 戰教司로부터 20師團과 部隊 交代하라는 명령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20師團 61聯隊와 제가 교대를 했는데 주담마을에는 第11旅團 3個大隊하고 7旅團 2個大隊가 있습니다. 그때에 車輛으로 철수하는 部隊와 그다음에 「헬리콥터」로 철수하는 部隊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제가 그때 그것을 5個大隊를 지휘하다가 보니까 「헬리콥터」로 철수하는 部隊는 사실은 제가 저희 部隊를 안하고 7旅團에게 제가 「헬리콥터」를 주었습니다. 내 자식을 좀 괴롭더라도 자동차 타고 나오게 하고 남의 자식은 「헬리콥터」를 타서 막바로 주담에서부터 光州飛行場으로 이렇게 철수시키고 오로지 남은 것은 11旅團 3個大隊하고 輜重隊하고 그 다음에 7旅團의 輜重隊만이 남아서 나중에 61聯隊와 部隊 交代를 합니다.

여기를 통과하는 시간이 쭉 다시 光州市內로 이제 주담으로부터 所台洞으로 이렇게 해 갔고서 다시 돌아서 이 部隊가 羅州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요즘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서부터는 한 500m 거리가 되겠습니다. 步兵學校 教導隊로부터 저도 나중에 가보았습시다라는 여기가 꼬부라져 있습니다. 꼬부라져 있는데 꼬부라져 있고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감재고지에서 수미상의 武裝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 사격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部隊들은 아예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거기서 같이 應射하면서 그냥 강행 돌파합니다. 나오는데 나오다가 이 봉쇄선에서 約 한 150m인가 100m인가 그 정도 지역이 되면은 이 고개가 볼록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오는 이 차량은 이 教導隊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총성이 막 여기서도 應射하고 戒嚴軍도 산에다 대고 위협사격을 가하고 이쪽에서도 제

속해서 지나가는 戒嚴軍에게 총을 쏘는 것입니다. 하니까 이때 教導隊에서 아마 그래서 誤認이 되어갔고 지나가니까 무반동총 90mm 무반동총 한 서너발 때린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앞에 맨 선두에 있던 APC하고 뒤따라 오던 GMC 한 세 대 가량이 직격탄을 맞고 엄청난 事故가 납니다.

그러니까 나오던 이 戒嚴軍도 이것이 武裝示威隊인 줄 알고 총알이 날아오니까 또 應射를 합니다. 그래 여기서 이제 앞에 장갑차가 두 서너개 차량이 못지나가는 것이지요. 다 停車가 됩니다. 이 차가 이 停車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實彈이 오고가고 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委員님께서 여러가지 말씀하셨을거예요. 이런 實彈이 얼마나 많이 날아갔을지 모르겠어요? 이 地域에 날아가겠지요. 하니까 그러한 良民의 희생이 있을 것으로 또 저도 충분히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交戰을 하는데도 後尾에 있던 部隊에 대해서도 또 계속해서 거기서 총을 쏘는 이러한 상황이 있었던 것이 그날 5月24日 效泉驛에 소위 松岩洞 앞에 있어서의 步兵學校教導隊와 철수하는 特戰部隊間에 誤認射擊이 되는 이러한 概況이 되었습니다.

○李肯珪委員 交戰過程에서 市民들이 죽은 것은 유탄입니까?

○證人 崔 雄 그러니까 유탄이지요. 유탄이겠지요. 만일 죽었다면 뭐 그렇게 총알이 많이 날아가니까 유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쏘니까요. 戒嚴軍은 이렇게 쏘고 步兵學校에서는 이렇게 쏘고요.

○金吉弘委員 산에서도 쏜 것이...

○證人 崔 雄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산에서 쏜 것도 그러한 事故가 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킨 상태가 되니까 武裝示威隊가 쏜 것도... 또 武裝示威隊가 쏜 것에 의해서 실지로 戒嚴軍 한 사람이 또 죽습니다. 7旅團兵力이라고 그러니까...

○李肯珪委員 됐어요.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되었어요?」하는 이 있음)

○證人 崔 雄 제가 확실한 시간은 제가 기

억을 못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이런 資料가지고 한 두어달정도 준비했다라면 委員님 속을 환하게 풀어드릴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온지가 며칠 안되고 하니까요.

○吳景義委員 그 資料는 누가 보조를 해서 만들었습니까? 經緯 出處...

○證人 崔 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李肯珪委員 제 質問 끝난 다음에 質問을 하시고요. 예. 되었습니다.

○證人 崔 雄 나중에 제가 對答하겠습니다.

○吳景義委員 그때 몇명이나 죽었는지 이것이 나 한번 들어봅시다.

○證人 崔 雄 戒嚴軍 말씀입니까?

○李肯珪委員 지금 質問時間이 저예요.

○證人 崔 雄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혼돈하게 됩니다.

○李肯珪委員 光州에 쪽 계시는 동안 지금 그 作戰指揮權등등 문제가 상당히 우리 特委에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統制를 아까도 얘기하셨을거예요. 證人께서는 31師團長의 統制를 쪽 받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 光州에 계시는 동안 31師團長의 統制를 받은 期間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證人께서는...

○證人 崔 雄 5月19日 새벽 3時부터요. 03時부터 5月21日 撤收命令이 내린 바로 직전인 4時30분이 되었습니다.

○李肯珪委員 5月21日 그때 撤收命令이 내렸을 적에는 戒嚴司令官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까?

○證人 崔 雄 撤收命令 내리는 순간부터 31師團長의 作戰統制가 아닙니다.

○李肯珪委員 예. 그러면 이 期間中에 19日에서 21日이라고 했지요? 이 期間中에 31師團長을 거치지 않고 말이죠. 직접 戰敎司令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證人 崔 雄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李肯珪委員 그러면 31師團長의 그 命令이나 指示를 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崔 雄 命令指示를 거부한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命令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까? 일

단은 수령을 해야죠.

○李肯珪委員 命令指示는 몇번이나 받으셨습니까?

○證人 崔 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月19日 아침에 새벽3時 좀 지나서 師團의 作戰參謀가 朝鮮大學으로 왔읍니다. 와갔고 31師團의 作命을 하달합니다. 그 作命이 무엇인가 하면 7旅團2個大隊가 지금 말고 있는 目障地 다시 말씀해서 아까 쉽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둑판障地를 要所를 다 말아달라 하는 것이 최초의 31師團의 命令이었었고요. 그날 아침 제가 8時 좀 지나서 9時전후가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제가 또 師團長게 가서 신고도 드렸습니다. 인사드리고 왔읍니다. 그랬더니 역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錦南路 道廳 또는 이 光州驛 넓은데에 示威群衆이 많이 몰려가니까 이런 길목을 막아 갖고서 市民의 流入을 막아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벽에 作戰參謀가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 지금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5月19日 저녁때에 時間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5月19日 저녁때에 師團 作戰會議를 할 때에 제가 그 建議를 했습니다. 師團長님의 指示에 의해서 해 보니까 도저히 任務遂行이 어렵고 部隊들이 전부 各個擊破 당하고 어렵고 하니 部隊를 集中運營 할 수 있도록 命을 바꿔달라 이렇게 建議를 해 갖고서 承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李肯珪委員 承認을 그때 받았습니까?

○證人 崔 雄 예.

○李肯珪委員 그래서 그다음날 부대는 어떤 作戰의 지시가 내려왔어요?

○證人 崔 雄 그 다음날 20日이 되겠습니다. 20日 새벽에 3旅團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3旅團과 저희 旅團과 光州市內를 동서로 나누어 갖고 저희는 조선대학에 기지로 하고 3旅團은 全南大學을 기지로 하게 되고 저희는 주로 道廳앞에 錦南路 일대에서 소요진압작전에 임하게 됩니다.

○李肯珪委員 거의 제 사용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平和民主黨의 李海瓚委員 訊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15分입니다.

○李海瓚委員 平民黨의 李海瓚委員입니다.

證人은 아까 大使라고 그러셨지요?

○證人 崔 雄 예. 現職 大使입니다.

○李海瓚委員 大使는 駐在國에서 國家를 대표하고 있는데 證人은 지금 國民을 대표하는 國會에 나와서 證言을 하고 있습니다.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리고 宣誓를 하셨습니까.

○證人 崔 雄 예.

○李海瓚委員 證人은 아까 軍을 믿어달라고 애기를 거듭거듭 강조하셨습니까.

그 證人의 部隊가 步兵學校部隊의 兵力에 의해 가지고 아홉名이나 죽은 사실은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證人 崔 雄 예.

○李海瓚委員 그런데 그 공적조서가 폭도의 흉탄에 의해서 순직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總務處에서 제출한 資料에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證人은 그것은 누군가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괄 정리하면서 그렇게 쓴 것이다 이렇게 答辯하셨지요?

○證人 崔 雄 예. 그렇게 추측이 간다는 말씀입니다.

○李海瓚委員 그런데 같은 공적조서에서 31師團도 그 軍人들도 誤認射擊으로 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적조서에는 어떻게 되어있는 줄 아세요?

○證人 崔 雄 잘 모르겠습니다.

○李海瓚委員 忠正作戰에 참가하여 5月24日 순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도의 흉탄에 의해 순직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忠正作戰에 참가하여 순직한 것은 사실입니다.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그런데 證人의 部隊는 부하들은 폭도의 흉탄에 의해서 순직한 것이 아니지요?

○證人 崔 雄 그런데 그렇습니다.

물론 步兵學校 教導隊의 사격에 의해서 죽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李海瓚委員 이렇게 이것은 허위사실이 기재

되어있는 것이지요.

○證人 崔 雄 그 자체로 봐서는...

○李海瓚委員 누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허위사실인 것은 분명하지요?

○證人 崔 雄 그 자체로 봐서는 죽은 그 동기는 틀림없이 步兵學校 敎導隊에 의해서 죽은 것입니다.

○李海瓚委員 그러니까 폭도의 흉탄에 의해서 죽은 것은 아니지요?

○證人 崔 雄 폭도의 흉탄에 의해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

○李海瓚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조서가 旅團長을 거쳐서 鄭鎭溶司令官을 거쳐서 陸軍參謀總長을 거쳐서 國防部長官을 거쳐서 포상이 돼서 總務處의 역사적 영구보존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 光州市民들이 軍人들을 쏘아 죽었다고 허위기재를 했습니까?

○證人 崔 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짜피 사실을...

○李海瓚委員 됐습니다. 이것은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됐습니다.

○證人 崔 雄 아닙니다.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李海瓚委員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나중에 말씀하세요. 제가 얘기할 시간을 드릴게요. 證人은 訊問者에 대해서 證言만 하세요.

○證人 崔 雄 왜 야단을 치십니까?

○李海瓚委員 訊問하는 사실에 대해서 答辯을 하세요.

○證人 崔 雄 아 그러니까 물어보시니까...

○李海瓚委員 자 됐습니다.

證人은 이자리에 역사적인 證言을 하러 나온 것이지 자기의 주장을 하러 나온게 아닙니다.

한가지만 다시 묻겠습니다.

5月18日 세시경에 光州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參謀로부터 報告 받았다고 그랬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李海瓚委員 네시경에 鄭鎭溶將軍이 와서 33大隊와 35大隊가 현지에서 고전을 하고 있어서 慶尙道 軍人들이 光州市民들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流言蜚語 때문에 고전을 하고 있으니 證人이 가서 그 作戰에 참가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지요?

○證人 崔 雄 그 말씀을 제가 한 것은 틀

림없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제가 착오를...

○李海瓚委員 證人이 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입니다.

○證人 崔 雄 제가 말한 것은 틀림 없이 얘기를 했고요 착오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李海瓚委員 證人이 한 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것 입니다.

○證人 崔 雄 확인만 하시고 저는 좀 答辯을 드리면 안 됩니까?

○李海瓚委員 答辯 할 제제를 제가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證人이 착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왜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압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날 현지에서 空輸部隊가 作戰을 指揮한 것은 모든 資料에... 國防部가 本特委에 제출한 모든 資料에 18日 16時로 되어 있습니다. 18日 16時... 모든 資料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7空輸가 현지에서 作戰을 하기도전에 이미 慶尙道 軍人이 光州市民을 죽이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얘기를 特戰司令官이 자기가 그런 報告를 들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證人 崔 雄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李海瓚委員 제가 물어보고 나서 상황을 설명하고서 答辯하세요.

○證人 崔 雄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말씀을 또 들으셔야...

○李海瓚委員 제가 상황을 설명하고 答辯을 하세요. 答辯 할 시간을 드린다는 말입니다.

바로 作戰을 해봐야... 作戰을 시행해 봐야 軍人들 하고 市民들 하고 충돌해야 이런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런데 作戰도 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둘중의 하나입니다.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까 오해와 착오를 하셨다고 했는데 착오를 하셨다고 한 부분을 간단하게 答辯하세요.

○證人 崔 雄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8年前 얘기가 되었고요 또 「파키스탄」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좋지 않은 나라입니다. 온도도 높고 ... 그런 나라에 있다가 온지가 안되다 보니 까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李海瓚委員 착오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시라고요.

○證人 崔 雄 그런 流言蜚語는 바로 그것입니다.

流言蜚語가 있고 하니까 가서 조심해서 잘 하라 하는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린 사실을 流言蜚語가 나온 것이 제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 제가 기억하기에는 19日 오후부터 저녁부터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

○李海瓚委員 됐습니다. 證人 불과 몇시간전에 그렇게 證言하시고 불과 몇시간후에 그렇게 번복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동안 저녁을 먹었습니다. 證人이 여기에 들어오기전에 民正黨 事務室에 들렀다 나오셨지요? 제가 봤습니다.

○證人 崔 雄 民正黨 事務室은 모르겠고요 ...

○李海瓚委員 證人이 들어갔다 나온 事務室이 바로 民正黨 事務室입니다. 國會內에 있는 ...

○證人 崔 雄 그렇습니까?

○李海瓚委員 저녁밥 먹는 동안에 그러고 나서 지금 答辯이 바뀌었습니다. 證人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가는 TV를 시청하고 있는 國民들이 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네시부터 상황이 발생했나요? 18日 네시부터 ...

○證人 崔 雄 저는 그 18日 光州에 있었던 상황을 모르겠습니다.

○李海瓚委員 모르지요?

○證人 崔 雄 예.

○李海瓚委員 그러면 만약에 鄭鎭溶證人이 지난번에 證言한 것 처럼 18日 점심 먹고 직후에 金在明將軍하고 鄭鎭溶將軍이 만났을 적에 3空輸를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金在明將軍이 얘기했어요. 그것을 鄭鎭溶將軍이 11空輸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證言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을 여기 나온 證人에게 통보한 것 입니다.

그때까지 이미 상황이 光州에서는 書類上으로 발생하지 않았고요. 지금요 ... 그런데 그런

정도로 33大隊와 35大隊가 고전을 하고 있었다 라고 한 것은 사실이지요? 流言蜚語 내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어려웠고 ...

○李海瓚委員 그렇다면 이미 33大隊와 35大隊는 네시에 作戰狀況 ... 모든 資料에 나와 있는 것 이전에 이미 상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지요?

○證人 崔 雄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은 것 입니다마는 33大隊하고 35大隊가 全南大學에 있을 때에 그 全南大學校 學生들이 교문에서 戒嚴軍과 충돌했다는 얘기를 아침 아홉시인가 열시인가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李海瓚委員 제가 묻는 것은 光州道廳앞이라든가 YMCA앞이라고 하는 光州都心部에서의 상황을 말하는 것 입니다.

○證人 崔 雄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李海瓚委員 바로 바로 33大隊와 35大隊가 고전을 치르고 있다는 것은 光州 全南大學校 앞에서는 학생들이 도망을 갑니다. 고전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道廳에 와가지고 市內에서 空餘部隊들이 붙잡아 가지고 붐으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하니까 사람들이 市民들이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래서 鎮壓이 안되어 가지고 고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이 午後 4時 훨씬 이전에 전개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에는 4시부터 나와 있습니다. 상황이 ... 그것은 31師團에 配屬은 되었지만 31師團 師團長의 作戰指揮를 안받고 이미 움직였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 얘기가 틀립니까?

○證人 崔 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光州에 있었던 7旅團事項은 ...

○李海瓚委員 바로 證人 다음에 그 33大隊長 權承萬大隊長이 證人으로 나옵니다.

○證人 崔 雄 예. 權大領에게 잘 물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瓚委員 바로 지금 證人이 앞서 證言한 것 처럼 鄭鎭溶將軍이 그런 流言蜚語를 證人에게 얘기했다라고 하면 상황이 없었는데도 鄭鎭溶將軍이 流言蜚語를 어디서 들었든가 본인이 만들어서 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 ...

○證人 崔 雄 제 잘못이지요.

○李海瓚委員 그렇지 않고 바로 33大隊와 35大隊가 現地에서 作戰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31師團의 지휘를 받지 않고 이미 作戰을 독자적으로 했더라는 얘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證人 崔 雄 그렇게 될리가 없지요. 師團長이 作戰指揮權이 적절 大隊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李海瓚委員 그렇기 때문에 作戰指揮權의 2元化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證人 崔 雄 있다가 확실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李海瓚委員 證人の 생각으로는 당연히 1元化가 되었어야 되는데 現地에서 실질적인 상황은 이렇게 전개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21日 道廳앞 發砲狀況에 관해서 質問을 하겠습니까.

아까 가지고 오신 要圖를 좀 주십시오. 그 要圖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要圖 필요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國防部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보이십니까?

○證人 崔 雄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대개 이해를 하겠습니까.

○李海瓚委員 여기가 道廳입니다. 여기가 道廳이고 여기가 60特戰司 2個의 大隊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특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全日「빌딩」은 여기 있습니다. YMCA 건물은 여기에 있고 그리고 區廳建物은 여기에 있습니다. 市民들은 지금 여기에 布陣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앞에서 뭐라고 아까 證言하셨느냐 하면 全日「빌딩」에서 이렇게 發射를 해서 軍人들이 自衛權으로 發砲했다 이렇게 證言하셨지요?

○證人 崔 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건물 이름은 제가 대지는 않았습니니다. 건물에서 射擊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구요...

○李海瓚委員 光州에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근처가 都心地이고 높은 「빌딩」은 다 여기 있습니다. 市民들은 여기 있고 空輸部隊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市民들이 都心地에 있는 「빌딩」에 올라가서 發砲를 할 수가 있습니까?

○證人 崔 雄 그 당시에 거기에 있었던 大隊長의 證言을 듣고...

○李海瓚委員 大隊長의 證言입니까?

○證人 崔 雄 예. 大隊長의 報告를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李海瓚委員 이 狀況表는 國防部에서 本特委會 만들어서 제출한 狀況表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市民들이 서 있는 대치하고 있는 선은 이 선입니다.

戒嚴軍이 포진하고 있는 데는 여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높은 건물에 市民들이 들어가서 部隊안으로 들어가서 쏘면 이쪽으로 쏘든가 하지 왜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며 여기서 이쪽으로 어떻게 쏘았습니까?

○證人 崔 雄 제가 볼 때 市民이 거기 있더라도 건물에 올라가는 것이 문제될 것 없지 않겠습니까.

○李海瓚委員 이 地域은 여기에 特戰司가 있지요. 여기에 特戰司가 있지요.

이 全體地域이 特戰司의 作戰指揮權이 완전히 들어와 있는 地域입니다.

○證人 崔 雄 그러니까 건물에서 特戰部隊 道廳쪽을 향해서 사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李海瓚委員 제가 말씀드리지요.

당시 상황을 報告를 받고 제쳤다고 그랬지요?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는 아십니까?

제가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지요.

그 당시 상황은 市民들하고 特戰司軍人들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서로 총을 들고 대치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特戰司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市民들은 그 밖에 이렇게 물러와 있었습니니다.

물러와 있으면서 市民들 代表가 空輸部隊將校 中領입니다. 中領한테 철수하라고 요청을 했었지요.

그 상황 報告 받으셨지요?

철수하라고 그러니까 中領이 무엇이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지금 上部에서 지시가 아직 안 떨어져서 지시가 떨어지는대로 철수를 하겠다. 이렇게 市民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니다.

지난번에 鄭鎭溶證人도 얘기했던 것처럼 20日 밤부터 철수 할 생각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상황판단들을 하고 있었지요! 시간이 종료된 모양인데 제가 繼承萬證人에

대한 訊問時間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쓰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로 상황을 報告하면서 市民들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그러던차에 市民들 밖으로부터 APC한대가 갑자기 뛰쳐 나왔습니다.

대화를 하고 있던차에...

그래 가지고 APC가 뛰쳐나오는 것을 空輸部隊를 쫓고 지나가가지고 道廳 분수대 앞을 돌아가지고 되돌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트럭」한 대가 또 이렇게 뛰쳐 나와 가지고 그것을 쏘기 때문에 그것이 가로수를 들이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APC 한대가 한 사람이 太極旗를 들고서 APC 한대가 또 뛰쳐 나왔습니다.

그것을 照準射擊해가지고 목에 명중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거꾸러지니까 그때까지는 총을 아무도 안 쏘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太極旗를 들고 있다 목에 관통하면서 거꾸러지고 APC가 되돌아 가지고 나오니까 市民들이 그때부터 “와”하고 물려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空輸部隊들이 集團發砲를 시작한 것입니다.

○證人 崔 雄 委員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大隊長이 있습니다.

○李海瓊委員 이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장에서 이것을 목격한 사람은 數千名 數萬名입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들만해도 數十名입니다. 證人!

證人은 市民들이 먼저 이 전혀 가당치도 않은 상황에 건물에 올라가서 총을 쏘서 自衛權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대단한 歷史的 僞證입니다.

○證人 崔 雄 저는 大隊長을 믿습니다.

○李海瓊委員 大隊長을 믿지요?

本人이 직접 본 것은 아니고 大隊長이 虛僞報告한 것을 그대로 믿은 것이지요?

○證人 崔 雄 虛僞報告를 했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李海瓊委員 證人! 市民들이 이렇게 총을 쏘다면 사전에 武器를 가지고 있었어야 됩니다.

市民들이 武裝을 한 것이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직후부터입니다. 그것을 제가 꼭 설명을 해 드리지요.

저는 市民들이 먼저 쏘았느냐 軍인들이 먼저 쏘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난 6個月 동안 資料를 모든 資料를 제가 다 훑어 보았습니다.

市民들이 처음으로 武器를 갖기 시작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자료에 보면 騷擾資料를 죽 검토해 보면 이렇습니다. 戰敎司 戰鬪詳報가 있고 그다음에 戰敎司 狀況日誌가 있고 그 다음에 2軍 戒嚴司令部에서 만든 戒嚴狀況日誌가 있고 陸軍本部 軍事研究室에서 刊行한 “騷擾鎮壓과 그 敎訓”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特戰司에서 작성한 光州騷擾事態 鎮壓作戰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자료에는 2時이전에 武器를 피탈한 사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戰敎司 戰鬪詳報에는 최초의 무기피탈이 5月21日 12時 池元洞에서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戰敎司 狀況日誌에는 1時35分 和順에 있는 파출소에서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軍戒嚴司令部 狀況日誌에도 여기에는 3時50분에 피탈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陸軍本部 軍事研究室에서 刊行한 騷擾鎮壓과 그 敎訓에도 2時30분에 처음으로 羅州의 금성파출소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特戰司의 騷擾事態 鎮壓作戰이라는 자료에만 時間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대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5月21日 黎明과 동시 暴徒들이 再雲集하였으며 이때 夜間에 警察 및 豫備軍 武器庫를 攻擊하여 奪取한 小銃과 彈藥을 휴대하고 戒嚴軍에 위협하였음. 13時부터 暴徒들은 裝甲車를 앞세우고 小銃射擊을 하면서 戒嚴軍을 攻擊하였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光州市內에서는 彈藥과 銃이 이 時間까지 被奪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尹興禎將軍이라든가 모든 戰敎司에 관련된 資料가 다 立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時間에 가장 가까운 時間에 被奪된 것은 光州에서가 아니고 全羅道의 다른 郡地域에서 被奪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特戰司는 다른 地域에 대해서는 作戰指揮를 안했어요. 光州地域에서만 했지...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特戰司가 他地域에서 被奪된... 武器가 被奪된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資料中에서 特戰司의 이 騷擾事態鎮壓作戰이라는 資料 내놓고는 아무 資料에도 1時35分 이전에는 武器가 被奪된 사실이 記錄되어있는 資料가 단 한 件도 없습니다.

證人! 이래도 市民들이 그날 軍人들에 대해서 先制攻擊했다고 그렇게 證言하실 수 있습니까?

○證人 崔 雄 저는 部下를 믿습니다.

○李海瓚委員 部下를 믿는다는 말... 그 한 마디만 가지고 이 엄청난게 중요한 歷史的 證言에 대해서 지금까지 변명하실 수 있습니까?

○證人 崔 雄 저는 辯明하는 것이 아닙니다. 大隊長의 報告를 받은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李海瓚委員 어느 大隊長한테서 報告를 받았습니까?

○證人 崔 雄 61大隊長한테 報告를 받았읍니다.

○李海瓚委員 61大隊요 누구죠? 이름이...

○證人 崔 雄 안부웅 大領입니다. 현재 大領이고...

○李海瓚委員 언제 받았습니까?

○證人 崔 雄 狀況이 끝난 다음에 주답에 가서 받았읍니다.

○李海瓚委員 주답에 가서 받았어요?

○證人 崔 雄 예.

○李海瓚委員 좋습니다.

○證人 崔 雄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에 와서 또 안 것입니까마는 光州市內의 支署에서도 武器가 被奪된 것이 그전에 나온 것도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李海瓚委員 稅務署武器가 被奪되었다고 나오지만요 거기에는 彈藥이 없었고...

○證人 崔 雄 그런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있기로 31師團 警戒兵力도 M-16이 被奪되고...

○李海瓚委員 언제 被奪되었습니까?

○證人 崔 雄 그런 것을...

○李海瓚委員 언제 被奪되었습니까?

○證人 崔 雄 날짜는 기억할 수 없읍니다마는 戰鬪詳報 보면...

○李海瓚委員 戰鬪詳報에 언제 被奪되었다고 나와있습니까?

證人! 證人은 外國에 나가면 國家를 代表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세로 外國에 나가서 國家를 代表해 가지고 外交活動이 되겠습니까?

○證人 崔 雄 그 무슨 그 失禮의 말씀을 하십니까?

○李海瓚委員 失禮의 말씀이라니요?

○證人 崔 雄 아니 지금 그러면 外交問題가 지고 따지시는 것입니까?

○李海瓚委員 證人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證人 崔 雄 저는 내 나름대로... 나는 能力이 없는 外交官입니다마는 賦與받은 外交官業務에 저는 제 나름대로 어려운 나라에 가있읍니다마는 저는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李海瓚委員 예. 최선을 다하신 줄 압니다.

○證人 崔 雄 너무 冒瀆的인 말씀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李海瓚委員 光州에 있는 派出所에서 光州市內에 있는 支署에서 21日1時30分 이전에 武器가 被奪된 派出所의 이름 하나만 대 보십시오.

○證人 崔 雄 委員님도 지금 現場에 계신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資料를 보시고 들으시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李海瓚委員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어요. 光州市內에 있는 支署에서 武器가 被奪된 사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時間 이전에 被奪된 支署 이름 한군데만 대 보십시오.

○證人 崔 雄 光州市內... 서울시內같으면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光州市內 동네는 잘 모르겠습니다.

○李海瓚委員 武器被奪이 두번 있었습니다. 하나는 稅務署에 있는 武器가 豫備軍의 武器



가 彈藥이 없는 상태에서 被奪된 사실이 한 번 있었고 MBC에 있는 武器가 被奪되었다가 返還된 사실이 있습니다. 支署에 있는 무기 被奪된 사실은 단 한 件도 없었어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全羅道의 一帶에 있는 武器가 그 外廓 郡單位에 있는 武器가 이 時間 이후에 被奪된 사실은 여러군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우선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時間을 아껴야 이 다음 權承萬 證人에 대해서 確認할 수가 있기 때문에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李海瓊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統一民主黨의 李仁濟委員 訊問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訊問時間은 10分입니다.

○李仁濟委員 제가 18分을 쓰기로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辛基夏 아 그러십니까? 18分間 ... 예. 그렇게 쓰십시오.

○李仁濟委員 統一民主黨의 李仁濟委員입니다.

本委員은 오늘 證人을 통해서 적어도 80年 5月21日 光州道廳앞에서의 集團發砲의 真相이 밝혀지리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습니다마는 다른 委員들의 證言을 듣다 보니까 오히려 本委員이 지금까지 갖고 있던 것 보다 더 많은 疑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本委員은 證人을 오늘 訊問하지 않기로 했었는데 다른 證人에 대한 訊問時間을 割愛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質問해 보겠습니다.

證人은 政府發表를 통해서 光州抗爭 期間중에 民間人이 1,021名이 死亡하거나 負傷당한 사실 알고 있지요?

○證人 崔 雄 예. 政府發表에서 들은 것은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死亡이 163名 負傷이 858名입니다.

그리고 死亡의 原因은 打撲傷 그러니까 戒嚴軍이 그 鎮壓棒으로 때려가지고 그것이 原因이 돼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刺傷 銃創으로 찔려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銃을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처음에 戒嚴軍이 주로 鎮壓棒을 사용했기 때문에 死亡原因이 순서별로 매개 일어났으리라고 이렇게 짐작이 갑니다. 제일 처음에는

打撲傷 그 다음에는 刺傷 그 다음에 銃傷 이런 순서로 民間人의 死亡者가 發生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 銃擊에 의한 死亡이 일어난 時點은 5月20日 밤 11時頃에 光州新驛에서 發生이 됩니다.

證人! 그 光州新驛에서 3空輸가 그 車를 가지고 防禦하고 있는 空輸部隊員들이 들진해 오는 그 運轉手들을 주로 狙擊해서 死傷者가 發生한 것 알고 있지요?

○證人 崔 雄 제 旅團은 아닙니다마는 3空輸가 驛에서 충돌한 것은 들은 것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20日 밤부터 光州全城에 아주 엄청나게 사태가 爆發적으로 擴大되었지요?

○證人 崔 雄 예.

○李仁濟委員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21日 光州道廳앞의 事態... 光州道廳앞에는 證人 廳下의 3個大隊과 그리고 7旅團所屬의 35大隊지만 역시 證人 廳下에 있었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이 4個大隊가 沮止線을 펴고 示威群衆하고 對峙하고 있었는데 이 對峙狀態는 20日 저녁부터 계속되었던 것이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밤새도록 계속되었던 對峙狀態입니다.

○證人 崔 雄 예.

○李仁濟委員 그 證人 아까 제가 뭐 많이 訊問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그 要點만 물어보겠어요.

그 對峙하고 있던 4個大隊의 大隊長들로부터 實彈使用 許容要請을 들었다고 그랬었지요?

○證人 崔 雄 예. 그것이 21日 午後가 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21日 몇 時쯤입니까? 제일 처음에 들은 것이...

○證人 崔 雄 그러니까 1時半인가 한 2시에 ... 기억은 잘 안나고요...

○李仁濟委員 지금 말이죠 거의 客觀적으로 나온 사실은 發砲가 1시부터 2時사이에 두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무래도 發砲하기 전에 뭐 發砲하도록 許容해 주십시오 이

런 要請이 왔었을 것 아닙니까? 大隊長으로부터 ...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 大隊長은 61大隊長 안부웅中領이라고 그랬습니까?

○證人 崔 雄 예.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1時頃に 왔습니까?

○證人 崔 雄 時間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

○李仁濟委員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까? 하여튼 한 낮에 왔습니까?

○證人 崔 雄 建議가 된 것은 불림없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한 낮에 왔습니까?

○證人 崔 雄 뭐 낮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午後가 되겠습니까마는 시간은 제가 기억을 할 수 없고요 ...

○李仁濟委員 예. 좋아요. 어디에서 그런 報告를 받았습니까?

○證人 崔 雄 그 당시는 제가 戰敎司에 있었습니다.

○李仁濟委員 戰敎司에 ... 戰敎司가 證人の 指揮所였습니까?

○證人 崔 雄 제 指揮所는 아닙니다.

○李仁濟委員 어디였지요? 指揮所가 ... 朝鮮大學입니까?

○證人 崔 雄 指揮所가 朝鮮大學입니다.

○李仁濟委員 朝鮮大學에 指揮所가 있었고 ... 戰敎司 司令官室입니까?

○證人 崔 雄 제가 기억나기에는 司令官室이 아니고 ...

○李仁濟委員 또 戰敎司에 뭐가 있습니까?

○證人 崔 雄 狀況室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戰敎司 狀況室 ... 아니 그 空輸旅團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使用하던 狀況室입니까? 아니면 戰敎司의 狀況室입니까?

○證人 崔 雄 戰敎司 狀況室이죠.

○李仁濟委員 아 戰敎司의 狀況室 ... 누구하고 같이 있었습니까?

○證人 崔 雄 제 作戰參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李仁濟委員 作戰參謀가 階級하고 이름이 뭐죠?

○證人 崔 雄 少領입니다. 그때 ...

○李仁濟委員 少領 누구입니까?

○證人 崔 雄 少領 유상운少領이 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안부웅中領이 무어라고 하면서 그 狀況을 報告하면서 이리이러한 狀況이니까 發砲하도록 許容해 주십시오하고 要請을 했을 것 아닙니까?

○證人 崔 雄 안부웅中領이 旅團狀況室에 말씀이지요?

○李仁濟委員 예.

○證人 崔 雄 朝鮮大學에 있기 때문에 朝鮮大學校에 있는 狀況 ... TOC長이 參謀長이 되겠습니다. 參謀長한테 建議가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인제 ...

○李仁濟委員 그래서 그 참모장이 다시 證人한테 電話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間接的으로 報告가 왔습니까?

○證人 崔 雄 예. 그렇게 됩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그 現場狀況을 무어라고 설명을 하면서 發砲許容을 要請을 했나요?

○證人 崔 雄 지금 市民이 武裝을 하고 銃을 쏘니 지금 兵力들이 위험하니까 自衛權을 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市民이 銃을 쏘면서 威脅을 하니까 證人 麾下의 空輸部隊員들의 生命이 위험하니까 自衛權을 許容해 달라 이랬습니까?

○證人 崔 雄 예.

○李仁濟委員 그래서 證人이 어떻게 對答했습니까?

○證人 崔 雄 그래서 좀 참아라 어렵더라도 좀 참고 내가 이 문제는 建議해서 곧 내가 연락을 해주마.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證人은 하여튼 發砲하지말라 이렇게 指示한 것이지요?

○證人 崔 雄 發砲가 아니라 그 建議는 좀 기다려달라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發砲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指揮官의 ...

○證人 崔 雄 自衛權의 하나가 되겠지요. 現地 指揮官이 措置를 할 수 있는 權限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아니 現地 指揮官이라는 것은 지금 證人 大隊長을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저희 大隊長한테 ...

○李仁濟委員 그러면 大隊長한테 裁量權을 준 것입니까?

○證人 崔 雄 裁量權을 준 것이 아니지요.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本委員이 묻지 않습니까?

○證人 崔 雄 달라고 달라고 하는 것을 못 하게 했지요.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말을 어렵게 하지 마세요. 軍隊 指揮命令이라는 것은 簡單明瞭한 것 아닙니까?

銃을 쏘게 해주십시오. 안돼! 이것 아닙니까?

○證人 崔 雄 또 그렇게 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戰鬥狀況 같으면 人民軍하고 싸운다든가 뭐 間諜하고 싸운다면야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李仁濟委員 人民軍하고 싸우지 않으니 문제 가 된 것 아닙니까? 더...

○證人 崔 雄 그러니까 이것이 어려운 狀況이기 때문에 그 大隊長도 어려운 建議를 하게 되고 자기 部下가 그렇게 安全에 危險을 받게 되니까요. 또 저도 그런 狀況을 알고 있기 때문에...

○李仁濟委員 證人! 이것보세요. 人民軍하고 싸울 때는 실사 쏘지 말라고 한것을 썩서 人民軍이 죽었어도 큰 문제 되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市民들...

○證人 崔 雄 그러니까 지금 委員님께서 命令이 간단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그 時點에서는 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證人 崔 雄 그렇지요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어떤 「액션」을 취하지 말아라...

○李仁濟委員 이것보세요. 자 證人!

旅團長이 發砲許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泰山과 같은 命令안입니까? 쏘지 말라. 절대로 쏘아서는 안된다 이런 命令 아니겠습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렇지요?

○證人 崔 雄 예.

○李仁濟委員 자 그러면 제가... 저도 軍을 兵으로 갔다 왔습시다마는 묻겠습니다.

○證人 崔 雄 상관없겠습니다.

○李仁濟委員 命令과 服從 이것 軍隊의 生命이지요?

○證人 崔 雄 生命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리고 軍隊라고 하는 것은 어떤 戰爭이라든지 또 國家的인 任務를 위해서 命令에 따라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武裝組織 아닙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자기가 살기 위해서 命令을 어길 수 없는 集團이지요 그렇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이것 大原則입니다. 例外가 있을 수 없는 原則이지요?

○證人 崔 雄 原則은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이 原則을 항상 머리 속에 두시고 저의 質問에 答辯을 해주세요.

○證人 崔 雄 예.

○李仁濟委員 그런데 證人은 아까 答辯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實彈을 全部 旅團에서 統制하고 있었다고 그랬지요?

○證人 崔 雄 旅團에 保管하고 있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旅團에서 旅團長이 統制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證人 崔 雄 保管하고... 大隊別로 다 되넘겨...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朝鮮大에 있는 旅團 指揮所를 떠나서 現場으로 갈 때 大隊長이 적어도 警戒用實彈 1人當 10發정도씩은 大隊長 「靚」車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대개 뭐 1人當 戰鬥用實彈은 60發인데 한 10發씩은 가지고 다니지요?

○證人 崔 雄 가지고 갈 수가 없지요.

○李仁濟委員 안가지고 갔습니까?

○證人 崔 雄 예. 가지고 갈 수 없지요...

○李仁濟委員 아니 다른 大隊는 보니까 가지고 다닌 데가 여러군데 있어요.

○證人 崔 雄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一원때 騷擾鎮壓 作戰할 때는 實彈을 携帶하게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證人이 확인을 했습니까? 안가지고 간 것을... 警戒用實彈도 大隊長「짚」車에 大隊長 統制下에 안가지고 간 것을 確認했습니까?

○證人 崔 雄 제가 뭐 일일이 가서 가져갔는지 안가져갔는지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命命은 불림없이...

○李仁濟委員 確認은 안했습니까?

좋아요 確認은 안했는데 原則的으로 旅團長인 證人이 統制하고 있었고 가져가라는 말을 안했기 때문에 안가져간 것으로 안다 이렇습니까?

○證人 崔 雄 알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李仁濟委員 좋아요.

그런데 道廳앞에 있는 尙武台에서 31師團兵力... 거기에서 證人 廳下의 大隊에서 實彈을 몇천發... 아까 몇천發이라고 그랬습니까?

○證人 崔 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M16 小銃 들었던 彈筒 두통이라고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몇發 정도 됩니까?

○證人 崔 雄 한 1,600發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1,600發...

○證人 崔 雄 예.

○李仁濟委員 1,600發을 얻어가지고 결국 그것을 사용했다고 하던가요?

○證人 崔 雄 예.

○李仁濟委員 그 몇특시에 그 사람들이 撤收했습니까? 「헬리콥터」로...

○證人 崔 雄 그것은 제가 時間을 모르겠습니다.

○李仁濟委員 時間을 모른다... 하여튼 發砲前에 出發했겠네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좋습니다.

안부웅中領 61大隊長이 證人에게 狀況이 위급하니까 發砲를 허용해 주십시오 하고 建議를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것 아닙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리고 實彈이 없었기 때문에 發砲 許容要請은 바로 實彈 支給要請하고 같은 것이었고요. 그렇지요?

○證人 崔 雄 自衛權을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李仁濟委員 實彈 支給要請과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證人 崔 雄 큰 範圍內에서 그것도 하나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런데 證人이 發砲가 안된다 해서 實彈을 안주었는데 안부웅中領이 61大隊長이 尙武館에 있는 31師團 兵力의 남은 實彈을... 그 實彈이 무슨 「비스켓」도 아니고 말이에요. 31師團에서 그냥 줄리도 없을 것 같은데 本委員의 常識으로는... 그것 그냥 줄 수 있는 것입니까?

○證人 崔 雄 分隊長이 陸軍 中領이 달라면 그...

○李仁濟委員 그래요? 階級에 늘려서 그냥 주는 것입니까?

○證人 崔 雄 보면 統帥이 날라오고 하는 그런 狀況이니까 주었겠지요.

○李仁濟委員 그냥 善意로 주었을 것으로 안다... 하여튼 자기의 直屬上官인 證人이 發砲를 허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發砲할 目的으로 안부웅中領이 尙武館에서 撤收하는 31師團 兵力으로부터 1,600發 정도의 實彈을 입수한 것으로 證人은 나중에 들어서 알고 있다 이말이지요?

○證人 崔 雄 예.

○李仁濟委員 그런데 그 直後에 證人은 아까 陳述할 때 달려오는 버스를 향해서 射擊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運轉手가 죽은 것으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證人 崔 雄 예, 運轉手가 죽은 것으로...

○李仁濟委員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날 낮에 撤收하기 전에 道廳앞 廣場에서 證人廳下의 4個大隊가 發砲를 해가지고 죽은 民間人은 그 한 사람으로 證人 알고 계십니까?

○證人 崔 雄 大隊長의 목격은 한 사람이 죽은 것으로 제가 받았고요 그 전에 지금 계속해서 戒嚴軍이 銃 쏜 것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앞서도 제가 地圖를 가지고 說明을 드렸음이다마는 그 당시 戒嚴軍이 處하고 있었던 그 어려운 상황도 제가 또 아울러서 말씀 드렸습니다.

○李仁濟委員 그것은 제가 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까... 아니 戒嚴軍이 銃 1,600發을 入手해가지고 쏘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戒嚴軍이 쏘가지고 民間人이 아까 지금까지 證言에서 보니까 運轉手하나 죽은

것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證人은 民間人이 몇 명 죽은 것으로 報告를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證人 崔 雄 大隊長이 그리고 난 다음에 撤收하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에 있다. 다 撤收하지 않습니까? 道廳으로부터 다 撤收를 해서 朝鮮大學에 가서 軍裝을 꾸리고 다 나갑니다 밖으로...

○李仁濟委員 아니 證人! 다른 說明은 내가 다 잘 들었고...

○證人 崔 雄 그러니까 民間인들이 그런 流彈에 의해서 死傷된 것을 그 사람들도 알 수가 없겠지요

○李仁濟委員 가만히 있어보세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證人! 그 간단한 質問을 그렇게 요령껏 대답을 안해주십니까? 證人은 그 現場에서 그 尙武館에서 撤收하는 31師團 兵力으로부터 얻은 實彈 1,600發을 가지고 戒嚴軍이 銃을 쏘서 民間人이 몇 명 죽은 것으로 알고 있느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證人 崔 雄 글썽 제가 數字는 잘 모르겠고요

○李仁濟委員 대략 몇 명정도 죽은 것으로 報告를 받았어요?

○證人 崔 雄 제가 報告받은 것은 없습니다.

○李仁濟委員 報告를 안 받았습니까?

○證人 崔 雄 예. 報告받은 것은 없고요 民間人被害난 것은 報告를 받은 게 없고 나중에 다 상황이 끝난 다음에 確認過程에서 民間人이 死亡한 數字가 全體 合해서 한 백 육칠십명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李仁濟委員 아니 그 백육칠십명은 光州抗爭期間 全期間을 통해서 發生한 것이고요 그날 22日 正午頃에 道廳앞 廣場에서 被害를 입은 民間人 數字 그 것을 제가 묻지 않습니까?

○證人 崔 雄 그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두번에 걸쳐서 集團發砲가 있었다는 사실은 報告를 받았습니까?

○證人 崔 雄 두번에 걸쳐서 集團發砲라는 것 잘 모르겠는데 무슨 말씀이신지...

○李仁濟委員 아 잘 모릅니까?

證人요. 命令과 服從이 生命이라고 그랬지

요?

○證人 崔 雄 그러니까 具體的으로 말씀해주셔야 대답을...

○李仁濟委員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原則 그리고 軍人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목숨을 나라와 民族을 위해서 어떤 任務가 주어지고 그 任務를 위해서 일하다가 上官의 命令에 따라 버리는 그런 組織입니다 證人이 그 時點에서 절대로 發砲해서는 안 된다 이 發砲要請을 거절했을 때 이 안부웅中領이 그런 軍의 絕對原則을 모를리 없는 안부웅中領이 아무리 위험했기로서니 銃을 쏘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證人 崔 雄 앞서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李仁濟委員 그리고 正當化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證人 崔 雄 그 APC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屋上에서 銃彈이 날아오고요 또 버스가 돌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려서 道廳앞으로 다 「패닉」狀態에 들어가는데요.

○李仁濟委員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버스가 밀려오고 APC가 돌진해오면 直屬上官이 절대로 쏘지말라고 했는데도 쓸 수 있는 것입니까? 軍人이...

○證人 崔 雄 그것은 現場 指揮官의 正當防衛가 되겠습니다. 자기 部下의 生命을...

○李仁濟委員 그래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本委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陸軍兵長出身인데 證人은 참으로 陸軍兵長出身인 本委員이 갖고 있는 상식보다도 더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죽으라면 죽는 것입니다 軍人은... 아니 軍人은 죽으라면 죽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民間人을 쏘지말라고 했는데 民間人에서 버스 한대 오고 APC 한대 온다고 銃을 쏘아요?

○證人 崔 雄 軍人服務規律에도 命令을 받을 때 정당한 命令이 아닐 때는 말씀이지요 그 命令에 대해서 異議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指揮官의 命令이...

○李仁濟委員 자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 證人 麾下의 4個 大隊 전부 다 이 道廳앞에 집결이 돼있고 수 많은 群衆과 對峙해 있고 또 證人이 報告받은 바 대로라고 하면 그야

말로 證人 麾下의 4個大隊가 전멸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엄청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었다는 말이지요?

○證人 崔 雄 하여튼 部隊安全에 매우 위태로웠다 하는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證人에게 있어서는 이것보다 더 급한 일은 없었겠지요?

○證人 崔 雄 오히려 말씀이지요...

○李仁濟委員 아니 證人! 이 部隊를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로부터 脫出시키는 것보다 이 위기로부터 部隊의 安全도 管理하고 또 그런 위기에 처하면 部隊員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 행동으로부터 市民의 安全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部隊掌握보다 더 급한 일은 證人에게 없었겠지요? 그 순간에...

○證人 崔 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市民이나 戒嚴軍이 被害를 안 보는 것이 最上의 方策이 되겠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렇습니다. 제가 묻은 것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證人은 어디에서 이 部隊를 指揮하고 있는 現場에서 大隊長들을 掌握하고 指示하고 했습니까?

○證人 崔 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戰敎司...

○李仁濟委員 戰敎司狀況室입니까?

그러면 戰敎司狀況室에서 大隊長들과 직접 通信이 됐습니까?

○證人 崔 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大隊長은 無電機를 가지고있고요. 그 無電機는 朝鮮大學에 있는 旅團 指揮本部 作戰統制本部하고 通信이 됐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니 本委員이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급한 상황이 없는데 어떻게 직접 通信할 수 있는 데로 가서 指揮를 해야지 한다리 건너서 할수 있는 戰敎司狀況室에 가 있었습니까? 證人!

○證人 崔 雄 그 이유가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證人 崔 雄 거기 제가 간 目的은 特戰部隊撤收를 빨리 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尹興禎將軍에게 우리 特戰部隊를 빨리 빼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李仁濟委員 尹興禎將軍이 못낸다고 하던가

요? 特戰部隊를...

○證人 崔 雄 못낸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 보라고 그러더구만요.

○李仁濟委員 누구의 命令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던가요? 尹興禎將軍이...

○證人 崔 雄 그분도 上級部隊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李仁濟委員 上級部隊요?

○證人 崔 雄 예.

○李仁濟委員 尹興禎證人은 지난번 이 證言臺에 나와서 20日부터 자기는 撤收할 것을 결심을 하고 있었고 道廳에 많은 機密文書들이 있는데 밤에는 「헬리콥터」로 作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음 날로 넘겼다 이랬습니다.

○證人 崔 雄 道廳의 文書는 문제가 아닙니다.

○李仁濟委員 아 그래요?

○證人 崔 雄 人間의 生命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李仁濟委員 예. 證人한테는 끝까지 문제가 아닌데...

○證人 崔 雄 文書 그까짓것 불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이 먼저 빠지고 했더라면 市民도 다치지 않고 戒嚴軍도...

○李仁濟委員 가만히 있어보세요. 證人!

그러면 戰敎司 狀況室에 간 것이 몇 時에 갔습니까?

○證人 崔 雄 그 날 아침 일찍 간 것으로...

○李仁濟委員 아침 일찍가서 몇時까지 있었습니까?

○證人 崔 雄 撤收指示가 내릴 때까지요.

○李仁濟委員 4時30分까지 갔습니까? 午後...

○證人 崔 雄 예. 그러니까 撤收指示가 내릴 때 그때 저녁때까지 있었읍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 안부웅中領이 證人이 허용하지않은 自衛權을 자기가 行使했으면 證人 崔 李煥性證人이나 傳家의 寶刀처럼 衛戍令 15條를 들먹이는데 그 衛戍令 15條에 의해서 自衛權을 行使했을 경우에는 즉각 報告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부웅中領이 1時에서 부터 2時사이에 集團發砲를 해가지고 證人은 보았는지 모르지만 당시 市民軍司令官이던 金宗培證人이 이 證言臺에 나와서 바로 그 現

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50餘名이 죽었어요. 더 많은 數字가 負傷당하고... 이런 엄청난 事態가 이 날 낮에 벌어 졌는데 證人이 撤收할 때까지 證人에게 報告가 안되었을까요?

○證人 崔 雄 現場에 있던... 제가 만일에 現場에 있더라도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李仁濟委員 그렇습니까?

○證人 崔 雄 그러한 豫想이 됩시다마는...

○李仁濟委員 空輸部隊는 이렇게 上官이 쓰지 말라 한 銃을 發砲를 하고 또 市民이 많이 쓰러 넘어졌는데도 즉시 즉시 狀況을 報告를 안하는 部隊입니까?

○證人 崔 雄 지금 심정이 그 당시의 狀況이라면 오직러 제가 몽땅 뒤집어 쓰더라도 야! 지금부터 내가 責任진다 部隊保存을 하라 저는 이렇게 命을 내렸을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證人 崔 雄 저는 솔직한 심정이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 저 혼자 다 責任지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땀땀하고요. 그러나 이것이 저희 部隊도 保存해야 되겠고 光州市民도 또 생각 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당시 말이지요. 證人의 指揮所에서 特戰司令部로 交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證人 崔 雄 特戰司에 저는 交信하는 데에 대해서 생각도 안해보았는데...

○李仁濟委員 내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證人 崔 雄 交信을 하면 할 수가 있지요. 무엇인고하니 電話가 되니까요. 民間電話가 있고 하니까...

○李仁濟委員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電話로 하든 無電機로 하든 交信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요?

○證人 崔 雄 民間電話가 있기 때문에 간단히 되지요.

○李仁濟委員 예. 좋습니다. 特戰司令部의 作戰處長인 張世東씨가 光州에 여러 번 내려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證人 崔 雄 司令官이 내려올 때에 따라온 것 같습니다.

○李仁濟委員 21日 證人! 張世東大領 만나본 일이 있습니까? 電話를 하거나...

○證人 崔 雄 張大領이 그 때 司令官과 함께 제가 기억나기는 20日 3個旅團이 光州에

내려오다가 보니까 司令官이 왔다...

○李仁濟委員 아니! 21日 狀況만 얘기해주세요.

○證人 崔 雄 21日은 없고요.

○李仁濟委員 21日 張世東大領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證人 崔 雄 예.

○李仁濟委員 그러면 결국 證人은 이 事態... 集團發砲事態가 난 몇時間후에 주담으로 撤收하고 나서 그것도 한 두사람 죽은 것 정도로 이렇게 報告받은 것 이외에는 이 날 낮에 만일 50餘名 이상이 죽은 그런 集團發砲事件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사실은 전혀 報告를 못받은 셈이 되네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제가 알게 되었는데요.

○李仁濟委員 좋습니다. 報告를 못받았다... 결국은 이날 證人麾下에 空輸部隊 4個大隊가 發砲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그 道廳을 死守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證人 崔 雄 그것은 아닙니다.

○李仁濟委員 그래요? 撤收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發砲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證人 崔 雄 死守가 아니고 撤收命令이 내려야 가지요. 道廳死守할 그러한 價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李仁濟委員 아니! 그러면 撤收命令이 안 내렸기 때문에 바로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까? 道廳을...

○證人 崔 雄 命令이 내리지 않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李仁濟委員 그 자리에 있는것이지요. 그러니까 命令이 안 내렸으면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證人 崔 雄 그렇게 됐지요.

○李仁濟委員 그렇게 됐지요.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市民은 죽더라도 우리는 죽지않고 道廳을 지키기 위해서 發砲했던 것이 아닙니까?

○證人 崔 雄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무엇이라고 答辯을 드려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지금 李委員님 말씀대로 國軍이 그런 식의 野蠻人的인 사람은 아니다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狀況이 있었습니까마는...

○李仁濟委員 아니! 그러면은 그 市民이 말이지요 무슨 人民軍도 아니고 또 뭐 共產主義하자는 사람들도 아니고 전해가 달라가지고 충돌이 일어난 것인데 道廳버리고 뒤로 撤收하면 될 것 아니예요?

○證人 崔 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仁濟委員 아니! 이해를 무슨 이해를 어떻게 합니까?

○證人 崔 雄 제가 꼭 말씀하는 것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李仁濟委員 證人! 이거 보세요. 그러면 안부웅大隊長이... 證人이나 내가 안부웅大隊長이라고 합시다.

자! 上部에다가는 이 뭐 發砲라도 해야만 道廳을 지킬 수가 있는데 發砲를 許可해 주십시오...

○證人 崔 雄 道廳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發砲를... 自衛權을 발동하지 않으면은 저희 아이들이 다 죽습니다하는 이런 얘깁니다.

○李仁濟委員 뒤로 撤收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뒤로 撤收하면은...

○證人 崔 雄 撤收하면 되겠지요.

○李仁濟委員 그런데 왜 撤收를 안 하고 銃을 쏘았을 까요?

○證人 崔 雄 撤收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命令이 안내려오니까 撤收를 못 했지요.

○李仁濟委員 아니 撤收하는 命令도 안 내렸지만은 쏘라는 命令도 안 내렸는데

○證人 崔 雄 물론 안 내렸지요.

○李仁濟委員 안부웅中領은 命令이 없는 두가지 행위중에서 發砲하는 것을 선택했느냐 이 말입니다.

○證人 崔 雄 아! 그러니까 大隊長이 판단했을 때 그 大隊長이 자기 나름대로 獨單... 獨單 決心을 한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래요?

○證人 崔 雄 예. 그렇기 때문에 射擊도 中止도 시켰고요 大隊長의 獨單決心이 되겠습니다. 現場에 있어서의... 그러니까 아까 大隊長에게 그러한 것을 제가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李仁濟委員 證人은 一個 大隊長한테 다 미루는 것입니까?

○證人 崔 雄 아니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李仁濟委員 그럼 무엇입니까?

○證人 崔 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면은 저는 大隊長에게 추호도 그러한 것을 책임을 轉嫁시킬 생각이 없습니다. 제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제가 다 책임을 집니다.

○李仁濟委員 그리고 證人은 이 道廳앞에서의 낮의 事態를 尹興禎司令官한테 報告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證人 崔 雄 예.

○李仁濟委員 尹興禎司令官한테 또 사전에 61 大隊長이 發砲承認要請을 해온 것을 전해 들었을때 또 相議를 했다고 그랬지요? 尹興禎司令官한테 許容해 줄 것인지 與否를...

○證人 崔 雄 尹興禎將軍에게 제일 처음은 제가 아침에 가서 이야기한 것은 部隊를 撤收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李仁濟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뒤에...

○證人 崔 雄 部隊를 撤收시켜달라고 그러는데 部隊가 자꾸만 撤收가 늦어지고 하니까...

○李仁濟委員 아니!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안부웅中領이 그 旅團指揮所를 통해서 이 發砲許容要請을 해왔다면서요 證人한테...

○證人 崔 雄 午後에 인제...

○李仁濟委員 午後에... 이야기를 듣고 證人 이 또 尹興禎司令官한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러면은 尹興禎씨는 바로 이자리에 나와서 며칠 안 됩니다 事前에 報告를 받거나 承認要請을 받은 사실도 없고 또 事後에 아주 報告받은 사실도 없다 여기 뭐 本委員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證人 崔 雄 그럼 그 분과 저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거짓말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李仁濟委員 글썽 말이지요. 자 그 분도 제가 알기로는 陸軍中將인가 그러셨고 證人도 이 나라의 자랑스러운 별이었는데 이것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무슨 錯誤가 일어날 사항도 아닌데 말이지요 원래 空輸部隊는 後退가 없는 部隊지요? 後退가 있



을 수 없는 部隊아닙니까?

○證人 崔 雄 필요에 따라서는 撤收도 할 수 있지요.

○李仁濟委員 敵陣에 갖다 부러놓는 部隊인데 後退 어디로 합니까? 갈 때가 없는 部隊 아십니까? 일단 들어가면은...

○證人 崔 雄 特殊作戰敎理를 보면요 特殊戰 部隊도 任務를 成功的으로 完遂하게 되면은 狀況이 許容되게 되면은 逃避및 脫出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逃避및 脫出...

○證人 崔 雄 예 그런 그 敎理가 있습니다. 그래서 敵地를 이탈해서 배를 타고 나오든 潛水艦을 타고서 나오든 또 「헬리콥터」가 날라가서 이렇게 잡아서 나오든 그러한 敎理가 다 있습니다.

○李仁濟委員 그래요?

○證人 崔 雄 예. 던어놓고 들어가서 죽어라하는 것은 너무 좀 심한 말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은 逃避및 脫出 英語로 말씀드리면 E & E라고 그러합니다. 그것이... 美國사람 敎理에도 나온 것인데요.

○李仁濟委員 證人이 空輸旅團을 이끌고 光州에 내려갈때는 騷擾事態鎮壓의 任務를 받고 내려갔지요?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李仁濟委員 피를 흘리더라도 鎮壓이라는 任務를 遂行해야 될 그런 狀況이었습니까?

○證人 崔 雄 命令이 분명히 鎮壓을 하라는 命令이기 때문에...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證人 崔 雄 命令變更이 없는 이상은 命令 遂行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李仁濟委員 그렇지요 鄭鎬溶證人도 이 자리에서 空輸部隊兵力이 騷擾事態를 鎮壓하러 投入이 되었는데 가서 武力示威를 해가지고 市民들이 恐怖心에 잠잠해지면 좋지만 反撥해서 衝突이 일어나면은 流血事態가 오리라는 것을 豫想했다 이렇게 證言을 했습니다.

○證人 崔 雄 예상이 됐었습니다.

○李仁濟委員 예. 예상이 됐었지요? 證人도...

○證人 崔 雄 예.

○李仁濟委員 證人이 그 任務를 포기하지 않는 한 有血事態를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지요?

○證人 崔 雄 任務를 포기 않았더라면 그러한 有血이 더 났겠지요.

○李仁濟委員 그리고 끝까지 任務를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태의 有血이 일어났었던거지요?

○證人 崔 雄 고민이 많았고 그러한 또 結果가 나왔고...

○李仁濟委員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任務를 賦與한 사람들 그런 任務를 賦與하는 高度의 政治的 軍事的 決定을 한 사람들 결국 그 사람들한테 光州 悲劇의 原罪는 있는 것입니다.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 證人席에 앉아 있는 證人도 어떻게 보면 被害者의 한사람이지 절대로 이 悲劇의 加害者의 한사람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證人은 그런 任務를 賦與하는 高度의 決定에 관여한 사실이 없지요?

(辛基夏幹事, 文東煥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文東煥 이제는 결말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李仁濟委員 證人은 없지 않습니까? 證人이...

○證人 崔 雄 저는 그 당시 旅團長이고...

○李仁濟委員 순수한 軍人이었지요?

○證人 崔 雄 순수 軍人입니다.

○李仁濟委員 그렇지요?

○證人 崔 雄 예.

○李仁濟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民正黨의 鄭昌和委員... 16分 許容이 됐습니다.

○鄭昌和委員 鄭昌和委員입니다.

몇가지 證人에게 確認하겠습니다.

먼저 作戰 指揮權 二元化 云云에 대한 문제입니다.

空輸特戰部隊가 光州에 있는 동안에 鄭鎬溶特戰司令官이 光州를 수차례 오갔다. 또 당시에 特戰參謀였던 張世東씨가 오가거나 隨行을 했다.

또 空輸部隊 訓練이 잘되어 있고 上下關係가 다른 어느 部隊보다가도 끈끈하기 때문에 자기의 直屬上司가 아니고는 命令을 잘 듣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하는 등의 얘기가 그 동안 이 聽聞會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몇가지 이유때문에 光州에 派遣된

特戰部隊는 사실상으로는 31師團이나 戰鬪教育司令官의 作戰指揮下에 있었지만은 實質的으로 母體部隊의 指揮官으로부터 作戰指揮를 받고 있지 않았느냐 하는 誤解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現地를 指揮했던 指揮官으로서 분명하게 이 指揮權에 대한 그 때 당시의 狀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崔 雄 앞서도 말씀드렸지마는 5月19日 저희 旅團이 들어가서 命令받은 것 다시 말해서 懸擧任務를 이렇게 해 주기를... 해야 된다 하는 命令을 틀림없이 31師團으로 받았읍니다.

소위 바둑판 식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날 저녁때에 그렇게 運營하다 보니까 部隊가 여러가지 隘路가 많고 하니 特戰部隊 特性을 고려해서 集結運營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建議을 했더니 그것도 또 師團長이 承認해주었습니다.

그런 狀況에서 20日까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部隊가 어려웠을 때 自衛權發動이라든가 撤收勸誘도 제가 누구한테 하고 하니 앞서도 李仁濟委員님 質問에 제가 答辯했습니다마는 戰敎司令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분의 命에 의해서 또 저희 特戰部隊는 5月21日 주담으로 撤收했고 攻勢任務도 戰敎司令官한테 받았고요. 그 때가 蘇俊烈將軍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20師團하고 交代하는 것도 바로 蘇俊烈將軍에게 제가 받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光州市內 秩序回復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에 目標 부여받은 것도 5月26日 午前에 있었던 전체 指揮官會議 마치고 난 다음에 3個 旅團長과 20師團이 같이 모였어도... 그러면 20師團長도 무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蘇俊烈한테 받았읍니다.

○鄭鳳和委員 그러면 오르내린 司令官이나 作戰參謀 그런 분들은 그 때 전혀 안만났습니까?

○證人 崔 雄 作戰參謀 張世東씨가 그 후에 警護室長하고 安企部長도 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그 때 사실 제가 볼 때는 정말 참 동생도 아주 몇 째 동생 이런 後輩입니다. 늘 저한테도 어려워하고... 先輩한테 어려워해야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張大領은 그 때 보면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司令官이 내려가니까...

○鄭鳳和委員 그러니까 作戰指揮를 받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예.

○鄭鳳和委員 그러면 그 동안에 質問... 證言過程에서 戰鬪教育司令官 안에 特戰司令官의 指揮部가 그 안에 設置되어 있었다 라는 그러한 얘기가 오간 적이 있는데 證人은 CAC 戰鬪教育司令官안에 特戰司令官의 指揮部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證人 崔 雄 저는 도저히 있었는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르겠습니다. 行政支援을 위해서요. 特戰司令部에서 무슨 그 光州에 나와있는 部隊를 위해서 行政支援을 하기 위해서 死亡者 後送이라든가 또 空軍과도 協調를 해야 되거든요. 死亡者를 飛行機에다 싣고 가게되고 또 重患者는 곧 또 綜合病院에 後送을 해야 되니까 그런 次元에서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제 추측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特戰司가 거기에 와서 司令部... 저도 特戰司令官을 한 사람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指揮의 ABC를 모르는 분들이 혹시 推測을 해서 오늘날 鄭鎬溶씨가 조금 「파워」가 있다 하니까 그런 次元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鄭鳳和委員 그러면 아까 流言蜚語에 대해서 다시 한번 確認을 하겠습니다. 7旅團이 光州에 도착한 시간이 몇 날 몇 時라고 그랬습니까?

○證人 崔 雄 7旅團말씀입니까?

○鄭鳳和委員 예.

○證人 崔 雄 7旅團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 旅團이 내려간 것은 19日 새벽입니다.

○鄭鳳和委員 조금 기다리세요. 7旅團이 잔거요.

○證人 崔 雄 7旅團은 18日 갔겠지요.

○鄭鳳和委員 18日 몇 時에 도착했습니까?

○證人 崔 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정확한 시간은...

○鄭鳳和委員 17日 밤 11時에... 그 정도는 隣接部隊니까 아셔야지요.

○證人 崔 雄 죄송합니다.

○鄭昌和委員 그러면 11旅團이 간 것은 몇 때예요?

○證人 崔 雄 저희가 내려간 것은... 죄송합니다 7旅團을 몰라서...

○鄭昌和委員 아니! 11旅團이 가기 위해서 서울에 集結한 시간이 몇 때예요?

○證人 崔 雄 11旅團 말씀입니까?

○鄭昌和委員 예.

○證人 崔 雄 11旅團이 淸涼里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 날 저녁때...

○鄭昌和委員 아니 그러니까 아까 證人이 말하기를 慶尙道 軍人이 全羅道 云云한 그 流言蜚語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注意를 해서 잘 하라는 鄭鎬溶特戰司令官의 指示事項을 5月 18日 光州로 떠나기 전에 東國大學校 運動場에 集結해 있을 때 뭐 指示를 받았다 그렇게 證言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때문에 確認하는 거라...

○證人 崔 雄 바로 그 문제때문에 아까 李海瓚委員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못 알고 했다 하고 李海瓚委員 質問에 제가 答辯을 그렇게 했습니다.

○鄭昌和委員 아니 글썽 그러니까 11旅團 證人의 部隊가 東國大學校에 集結한 시간이 몇 시간 이거예요.

○證人 崔 雄 東國大學에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午後 4時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鄭昌和委員 그러니까 아까 證言은 잘못되었다 이 말이에요?

○證人 崔 雄 예. 죄송합니다.

○鄭昌和委員 적은 착각이 큰 실수를 가져오니까 조심하세요. 11旅團이 撤收作戰時에 한 任務가 됩니까?

○證人 崔 雄 撤收作戰... 며칠 撤收하는 거지요?

○鄭昌和委員 아 저 마지막 鎮壓作戰時에...

○證人 崔 雄 5月 27日 제가 받은 任務는 말씀이지요. 觀光「호텔」하고요 그 다음에 全日「빌딩」을 制壓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副次的으로 YWCA를 또 저희들이 占領을 합니다.

○鄭昌和委員 그것이 鎮壓作戰時에 證人의 部隊에 주어진 任務였습니까?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鄭昌和委員 이 最終鎮壓作戰命令을 누구로부터

터 받았습니까?

○證人 崔 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蘇俊烈 將軍으로부터 그의 事務室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鄭昌和委員 그때에 指示된 내용중에 가장 명심해야 할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證人 崔 雄 그러한 作戰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保安維持와 그 다음에 최대한 被害가 나지 않게끔 奇襲의 效果를 달성해서 雙方間에 死傷者가 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鄭昌和委員 최소의 희생이 최대의 성과다...

○證人 崔 雄 그렇습니다. 원래 원칙은 그렇습니다.

○鄭昌和委員 最終 鎮壓作戰이 終了된 후 證人이 指揮한 11旅團은 언제 서울로 돌아왔습니까?

○證人 崔 雄 그 다음날 28日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鄭昌和委員 마지막으로 證人에게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 정말 답답하게도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 비극의 光州事態에 대하여 왜 國民이 낸 稅金으로 軍服을 입고 國民이 낸 稅金으로 訓練된 軍人이 市民을 향해 銃을 쏘아야 하고 내 아들이고 내가 낸 稅金으로 訓練시킨 내 아들들 내 동생의 軍人들을 향해 銃을 쏘아야 하는 그러한 事件이 일어났느냐 정말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바로 그 歷史의 現場에 한 部隊를 指揮했던 指揮官으로서 이 歷史의 證言台에 8年이 지난 이 시간 여기에 나오셔서 4,000萬 國民앞에 歷史앞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십시오.

○證人 崔 雄 참 너무나 어려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불행이 일어나지 않게끔 指揮者 政治指導者라든가 또 모든 國民 舍心해서 다시는 그런 悲劇이 일어나지 않게끔 나라를 위해서 서로서로가 양보하고 서로 서로 감싸주고 누구의 弱點을 잡지들 말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날 이 大韓民國이 이렇게 發展해 나가는데 앞날을 내다보는 이러한 나라가 되기를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는 이러한 悲劇이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또 그런데 제가

힘이 된다면은 목숨을 바쳐서라도 앞으로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奉仕를 하겠습니다.

○鄭鳳和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이상으로 崔 雄證人에 대한 訊問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손을 가슴에 얹고 양심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證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10分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分 쉬십시오. 10時5분에 여기 모여 주십시오.

停會를 宣布합니다.

(21時54分 會議中止)

(22時6分 繼續開議)

○委員長 文東煥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權承萬證人의 證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證言을 듣기 전에 관련된 法律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國會에서의 證言鑑定등에 관한 法律에는 證人이 同法을 위반하면 처벌할 수 있는 規定과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證言內容에 대하여 不利益處分을 받지 아니한다는 保護規定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證人 宣誓가 있겠습니다.

○證人 權承萬

(證人宣誓)

○委員長 文東煥 權承萬證人에 대하여 各 交涉團體別로 배정된 時間을 말씀드리겠습니다.

民主正義黨에 20分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權承萬證人에 대한 訊問委員은 모두 여섯분입니다. 金吉弘 趙贊衡 金仁坤 沈明輔 李海瓚 李光魯 이렇게 여섯분께서 계속해서 訊問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民主正義黨의 金吉弘委員께서 訊問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時間은 30分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民主正義黨所屬 金吉弘委員입니다.

現役 軍人인 權承萬大領은 光州示威鎮壓 當

시 現場에 投入되었던 一線 指揮官으로서는 本 光州特委 聽聞會에 나온 두번째의 證人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本委員은 光州 문제의 眞상규명을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해서 당시 示威鎮壓에 나섰던 장병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생생한 證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證人은 證人이 현재 몸담고 있는 國軍의 名譽와 기백을 살려서 歷史앞에 眞實을 밝히려는 각오로 사실과 良心에 따라서 분명한 答辯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本委員의 訊問을 시작 하겠습니다.

證人의 당시 계급과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계급은 당시 中領이었고 직책은 7空輸旅團 33大隊長이었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部隊의 所在地는 어디였습니까?

○證人 權承萬 全羅北道 金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金吉弘委員 證人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證人 權承萬 全羅北道입니다.

○金吉弘委員 空輸 7旅團33大隊長으로 補職命命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證人 權承萬 79年度 4月中旬頃에 받았습니다.

○金吉弘委員 현재의 階級과 職責은 무엇입니까?

○證人 權承萬 陸軍大領입니다. 職責은 情報司令部 軍需次長을 하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알겠습니다.

당시 33大隊 部隊員들 가운데 全羅道出身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참고로 출신도별 部隊員構成比率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權承萬 그것을 정확히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략 제가 기억나는 대로 프로테이지로 말씀드리면 湖南地域이 約 35%에서 40%로 기억이 되고 嶺南地域이 20%에서 25% 그 외는 이제 京畿 江原地域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金吉弘委員 光州로 出動하라는 命命은 언제 누구에게서 부터 받았습니까?

○證人 權承萬 80年度 5月17日 19時頃에 당시 7空輸旅團長 신우식將軍으로부터 口頭로

命令을 받았습니다.

○金吉弘委員 그 命令의 最終 도착지가 全南大로 되어 있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그렇습니다.

○金吉弘委員 出動當時 證人의 部隊의 兵力은 몇명이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將校가 45名 兵이 321명이었습니다.

○金吉弘委員 證人의 部隊가 全南大學校에 도착한 것은 5月 며칠 몇時였습니까?

○證人 權承萬 5月18日 零2時頃에 도착했습니다.

○金吉弘委員 5月18日 零2時頃입니까?

○證人 權承萬 그렇습니다.

○金吉弘委員 그리고 언제까지 光州에 있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완전히 光州問題가 다 정리가 될때까지 마지막까지 있다가 철수했습니다.

○金吉弘委員 날짜를 말씀해주십시오.

○證人 權承萬 光州市內에 있는것은 5月21日 까지 있다가 全部隊가 철수할 때 같이 외곽으로 철수했고 그 다음에 외곽에서 한 이상 일 있다가 다시 松汀里 飛行場으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대기하다가 旅團으로 철수한 것은 6月初旬으로 기억이 됩니다.

○金吉弘委員 처음 全南大에 도착했을 때 證人의 部隊員들이 校內를 수색한 적이 있습니까?

○證人 權承萬 예. 수색했습니다.

○金吉弘委員 수색결과는 어떠했습니까?

○證人 權承萬 수색결과는 學校內에 있었던 學生들이 約 30餘名 저희가 保護措置를 했고 거기에서 몇가지 收去物이 있었습니다. 메모에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油印物 여러 종류와 현수막 녹음테이프 녹음기 등을 收去物로 收去를 했습니다.

○金吉弘委員 그때 혹시 部隊員들과 學生들간에 충돌은 없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學校內에 있었던 學生들은 별로 人員이 많지를 많았고 순수하게 저희 要員들의 지시에 잘 따라주었기 때문에 충돌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그러면 全南大 學生課長이었던

당시 서명원씨는 空輸部隊의 도착시간에 대해서 5月17日 밤 23時라고 하고 있고 더우기 校內에 있던 學生들이 심하게 구타를 당해서 초죽음이 되고 있다는 전화를 숙직실로부터 받고 현장에 갔다고 당시 狀況을 說明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證人 權承萬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도착한 것은 18日 零2時에 도착을 했습니다. 따라서 17日 23時에 어떠한 狀況이 있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狀況입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초죽음이 되었다 하는 내용 자체도 저는 거기에서 報告를 받은 바가 없고 아침에 저희가 連行된 人員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을 때는 초죽음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멀쩡하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人員들을 이상없이 關係機關에 引繼를 했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學生들을 구타한 일은 없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구타한 일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報告를 받은 바도 없습니다.

○金吉弘委員 5月18日부터 道廳에서 空輸部隊가 撤收할 21日까지의 日字別로 證人이 지휘한 大隊의 作戰內容을 간단하게 說明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權承萬 예. 먼저 18日입니다.

○金吉弘委員 간단하게만 말씀하세요.

○證人 權承萬 錦南路에서 일부 示威鎮壓作戰이 있었고 夜間에는 師團長 지시에 의해서 光州市內의 주요 목표지역에 分散되어서 兵力을 배치해서 경계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5月19日은 31師團의 機動打擊隊로서 주요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示威群衆과 직접 대치하는 상황은 없이 師團長이 지시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機動打擊隊로서 대기임무를 중점으로 수행을 했습니다.

20日도 역시 마찬가지로 31師團의 機動打擊隊로서 晝間에는 光州驛과 鷄林洞派出所 근처에 대기하면서 機動打擊隊 임무를 수행하고 夜間에는 朝鮮大學校 방어임무를 부여받고 朝鮮大學校에 가서 21日 撤收할 때까지 朝鮮大學의 방어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金吉弘委員 되었습니다. 證人의 部隊가 光

州에 있는 동안에 作戰指示는 누구로 부터 받았습니까?

○證人 權承萬 31師團長내지는 31師團의 參謀系統을 통해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金吉弘委員 證人이 속한 7空輸 33大隊와 35大隊는 光州에 도착을 해가지고 郷土師團인 31師團에 配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證人 權承萬 예. 그렇습니다.

○金吉弘委員 31師團에 配屬된 것은 정확히 언제부터입니까?

○證人 權承萬 정확한 時間은 저희가 全南大學校 도착과 동시에 配屬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명령을 받은 것은 도착한 이후 約 1時間쯤후에 師團의 參謀로부터 직접 서류로 명령을 받았고 그 서류상에는 31師團 96聯隊에 再配屬이 되는 것으로 명령이 나와있었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31師團長은 누구였습니까?

○證人 權承萬 현재 平民黨 國會議員이신 鄭雄將軍님이십니다.

○金吉弘委員 光州에서 31師團長을 만난 것은 언제 어디였습니까? 처음으로 말입니다.

○證人 權承萬 맨처음 뵈게된 것은 5月18日 14時30分頃 全南大學校 練兵場에서 만났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31師團長이 戒嚴軍에게 軍人이 示威를 진압하지 못하면 큰일이다. 죽음을 무릅쓰고 示威隊를 해산하고 主動者 및 極烈行動者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權承萬 예. 여러가지 指示事項이 있었습니다다는 그 指示事項속에 그 내용도 포함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指示內容과 鄭雄師團長이 지시한 日字 장소를 분명하게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證人 權承萬 5月18日 14時30분에 지시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金吉弘委員 그렇지요.

○證人 權承萬 5月18日 14時30분에 500MD 「헬」기를 타고 全南大 연병장에 내리서 가지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金吉弘委員 證人이 직접 들었습니까? 또는 그 指示를 받은 또 다른 指揮官이 있습니

까?

○證人 權承萬 제 밑의 兼下地域隊長 3名과 情報作戰將校와 같이 들었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空輸部隊 大隊長 가운데 出動命令을 내리는 31師團長에게 警察兵力으로 示威를 진압해야 한다. 이 시기에 나가는 것은 좀 이르지 않느냐고 했었는데 證人께서도 이 말을 들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證人 權承萬 그 얘기는 당시 같이 출동해서 朝鮮大學校에 주둔하고 있던 7旅團 35大隊長으로부터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證人도 그 大隊長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까?

○證人 權承萬 그러니까 저희한테 와서 命令을 하달하신 그 시간은 저희가 그날 새벽에 도착해 가지고 잠도 한잠도 자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宿營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師團長님한테 직접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잠도 한잠 자지 못하고 宿營準備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出動을 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作戰狀況과는 관계없이 저희 部隊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金吉弘委員 31師團長은 출동명령을 내리면서 「팀」單位라고 이것은 特戰司에서 고유로 사용하는 용어라고 그러합니다. 「팀」單位로 兵力을 운용하라고 지시했다는 데 사실입니까?

○證人 權承萬 그와같이 兵力을 운용한 것은 5月18日 21時에 제가 命令을 받아 가지고 실제 兵力이 분산된 것은 22時부터 해서 19日 새벽 4時까지 그와같이 운용이 되고 그 이후에는 11旅團 61大隊가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임무를 11旅團 61大隊長한테 인계를 하고 저희는 다시 집결해서 全南大學에 있었습니다.

○金吉弘委員 「팀」單位 운용이라는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팀」單位 운용에 대해서 特戰司指揮官들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말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證人 權承萬 예. 1個「팀」하면 원래 人員이 다 찾을때 10分의 1名입니다. 그런데 휴가가고 또 兵力이 100% 보충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9분의 1이 되는데도 있고 8분의 1이 되는데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이 人員들로 하여금 어떤 重要施設들을 분산해 가지고 배치해서 경계를 하도록 임무가 주어졌던 내용입니다.

○金吉弘委員 그렇다면 당시 示威鎮壓에 있어서 그와같은 兵力 운용은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證人 權承萬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하기 보다는 저희 特戰司에서 示威鎮壓을 하는데 있어서 兵力 운용은 교리상에 나와 있는 것은 그와같이 「팀」單位로 분산을 해서 운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하로 분산을 해 보아야 지역대단위 내지는 大隊單位로 운용을 하는 것이 당시 저희들 교리였고 또 그것이 통상적으로 운용되는 部隊運用이었습니다.

○金吉弘委員 5月21일까지 證人은 당시 指揮官이던 31師團長을 몇차례 만났고 어떤 지시를 받은 적이 있으며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權承萬 맨 처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月18日14時30分에 錦南路에 투입을 하는 作戰命令을 하달하실 때 처음 제가 뵈었고 두번째는 18日21時頃 師團會議室에서 作戰會議를 할 때 뵈었습니다.

세번째는 19日 約 20時頃에 역시 그때도 師團會議室에서 會議를 할 때 뵈었습니다. 19日과 18日 야간에 뵈었을 때 지시하신 내용은 주로 部隊 운용에 관한 문제들이었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證人의 部隊에 대한 指揮權은 5月21日16時를 기해서 31師團長으로부터 戰鬪教育司令官에게 移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1師團長은 31師團의 指揮權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정정할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31師團長의 지시를 직접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戰教司로 作戰權이 넘어간 것이 아니고 11空輸旅團으로 作戰權이 넘어갔습니다.

○金吉弘委員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5月21日 16時以後에도 鄭

雄師團長은 31師團長에 대한 作戰指揮權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5月21日 부터 27日까지 鄭 雄師團長이 光州事態와 관련해서 어떤 作戰指揮權을 행사했는지 기억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證人 權承萬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大隊長들 수준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金吉弘委員 그동안 당시 31師團長은 鄭鎬溶 特戰司令官이 계속 空輸團을 지휘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證人은 光州에 있는 동안 鄭鎬溶 將軍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證人 權承萬 예. 光州에 있는 동안 5月27日 松亭里 비행장에서 저희가 光州市內에 마지막 平定作戰을 마치고 돌아온 이후 約 3時間후에 뵈일이 있습니다. 그 때가 처음 뵈었습니다.

○金吉弘委員 鄭鎬溶將軍으로 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示威鎮壓에 대한 作戰指示를 받은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權承萬 물론 5月27日以後에 뵈었기 때문에 直接的인 作戰指示는 전혀 받은 바가 없고 間接적으로도 저는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오직 지휘를 받은 것은 31師團에 배속이 되었고 大隊長을 직접 지휘하는 部隊는 오직 7旅團 33大隊만이 師團長님께서 직접 지휘를 하셨기 때문에 직접 31師團의 지휘를 받았습니다.

○金吉弘委員 證人! 분명히 答辯해 주셔야 됩니다.

指揮權二元化說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證人은 光州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 정식 指揮系統이 아닌 이외의 다른 어떤 指揮官으로부터 作戰指揮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證人 權承萬 전혀 없습니다.

○金吉弘委員 틀림없지요?

○證人 權承萬 틀림 없습니다.

○金吉弘委員 지난번 聽聞會에서 尹興禎證人은 鄉土師團과 空輸團이 사용하는 無電機의 주파수가 달라가지고 交信上에 애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通信裝備가 尹證人의 말대로 사용상에 애로가 있었는지 당시 大隊長이었던 證人이 직접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權承萬 無電機의 주파수가 달라서 無電이 通할 수가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軍隊生活을 한 분들이면 常識的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파수라는 것은 該營師團에 주파수범위가 정확하게 딱 주어져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주파수범위안으로 들어가면 自動的으로 그 주파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無電機性能問題에 있어서도 종류가 31師團에서는 PRC25 無電機를 가지고 있었고 저희는 PRC77 無電機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다 똑같은 FM無電機로서 성능이 다 같은 無電機입니다.

따라서 交信하는에 전혀 問題點이 없었습니다.

○金吉弘委員 불편이 없었다는 얘기지요?

○證人 權承萬 만약에 이와같은 無電上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通信을 설치해 주는 책임은 上級部隊에서 下級部隊로 설치할 해 주고 左側部隊에서 右側部隊로 설치할 해 주고 支援部隊에서 被支援部隊로 설치할 해 주도록 하는 우리 陸軍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師團에서 저희한테 無電機 딱 한대만 주어가지고 大隊長하고 交信할 수만 있도록 해 주면 아무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師團에 無電機 한대가 없겠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證人의 部隊가 휴대했던 裝備 즉 말하자면 武器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權承萬 編制裝備를 다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示威鎗壓에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전부 다 주둔지에 놓아두고 示威鎗壓을 하는데 필요로 하는 장비만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개인장비로서는 철모 방독면 진압봉 방석망둥을 휴대를 했고 部隊 장비로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PRC77 무전기와 화염방사기를 휴대했습니다.

○金吉弘委員 시위진압때 手榴彈을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證人 權承萬 수류탄은 휴대한 일 없습니다.

○金吉弘委員 「클레모아」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證人 權承萬 없습니다.

○金吉弘委員 화염방사기를 가져간 적이 있습니까?

○證人 權承萬 가져갔습니다.

○金吉弘委員 그러면 화염방사기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權承萬 예. 화염방사기는 저희가 시위진압을 할때 運營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는 통상 유색물감을 탄 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시위를 극렬하게 하는 사람이랄지 또는 주동자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화염방사기를 사격을 하게 되면 물이 분사가 되는데 약 15m에서 20m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 이 유색물감이 시위대의 옷에 묻게됨으로 인해서 그 색깔을 보고서 우리가 주동자와 극렬행위자를 연행하는데 손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따라서 선량한 어떤 市民이랄지 또 극렬하지않은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서 그와같은 어떤 착오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같은 화염방사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金吉弘委員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光州에서...

○證人 權承萬 사용을 했습니다.

○金吉弘委員 지난번 聽聞會에서 鄭鎭裕證人은 직접 시위진압과 관련이 없는 장비라할지라도 部隊가 이동할 때는 통상적으로 편제상에 있는 모든 장비를 휴대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權承萬 예. 그렇습니다.

○金吉弘委員 다음 그 당시 空輸部隊員들이 사용했다는 진압봉있지 않습니까?

○證人 權承萬 예.

○金吉弘委員 그 진압봉에 철침이 박혀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證人 權承萬 어디서 그게 나온 이야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이하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진압봉에 철침을 박는다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또 저같은 경우는 31師團에서 직접 모든 지휘를 다 해오고 또 行政이랄지 보급이랄지 이런 것을 다 직접 支援을 받았



기 때문에 31師團에서도 그 진압봉 우리 大隊가 휴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알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그러면 진압봉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저희가 만들어서 휴대했던 것은 길이가 45cm정도되는 소나무 또는 잡나무 등으로 만들어진 진압봉이었습니다. 이것은 大隊에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金吉弘委員 다음 光州事態 당시 戒嚴軍과 學生이 최초로 충돌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광주사태의 발생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質問하는 것입니다.

證人의 部隊가 전남대학교에 도착한 후 학생들과 최초로 충돌한 것은 도착다음날인 18日 아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證人 權承萬 그렇습니다.

○金吉弘委員 몇時입니까?

○證人 權承萬 10時頃입니다.

○金吉弘委員 이때 戒嚴軍과 學生들이 어떻게 충돌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權承萬 예. 간략하게가 안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전남대학교 정문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제가 報告를 받은 것은 전남대 연병장에서 숙영준비를 감독하고 있었던 18日 10時 10分에서 15分사이에 報告를 받았읍니다.

이 報告 내용은 정문에 있던 경계 支隊長으로부터 지금 約 200餘名の 學生들이 운집을 해서 등교를 요구를 하면서 부분적으로 돌을 던지고 또 알 수 없는 노래와 구호를 제창을 하고 있다. 따라서 支隊長이 戒嚴擴大 내용과 休校令措置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귀가를 요구하는데도 불응을 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大隊長한테 보고를 해왔습니다. 따라서 大隊長은 約 20餘名の 인원을 대동을 해서 제가 직접 정문으로 나갔읍니다. 가서 보니까 역시 支隊長이 보고를 했던대로 約 200餘名이 운집해서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제창을 하고 부분적으로 돌도 던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읍니다. 大隊長은 「메가폰」을 이용

을 해서 학생들에게 戒嚴擴大 내용을 설명을 하고 또 休校令이 내려졌으니 학교에 등교를 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게 됐읍니다. 이때 학생들은 大隊長한테도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잔소리 말고 물러나라 하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더 많은 돌맹이를 투척을 하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오토바이」를 타고서 정문앞에 서 있는 보초에게 질주를 해가지고 돌아가는 등의 보초에 대한 아주 자극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학생들이 시위를 했읍니다.

따라서 大隊長이 거기서 판단을 했을때 도저히 실득으로서선 선무방송으로써는 해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만약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학생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더 큰 충돌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約 10時30分頃에 최초 大隊長이 대동을 했던 20餘名の 戒嚴軍을 정문 밖으로 출동을 시켰읍니다.

이 인원들이 함성을 지르면서 뛰어나가자 학생들은 도망을 하면서 錦南路로 모이자 하는 소리를 외치면서 거기서 도망을 했읍니다. 따라서 저희 부하들은 約 100餘m따라가다가 원체 몸에 군장이 많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이 全南大學校 정문에서 있었던 상황의 전부입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全南大學校 도로는 포장이 됐었습니까? 기억 나시는 것 말씀해 주세요.

○證人 權承萬 全南大學이 생긴지가 언제인데 그때까지 大學의 정문 앞에 포장이 안되었겠읍니까.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분명히 포장이 됐었읍니다.

○金吉弘委員 그렇다면 시위학생들이 던진 돌맹이는 大學周邊에서 쉽게 주을 수 없었을텐데 어디서 돌을 가져왔다고 봅니까?

○證人 權承萬 학생들이 돌을 重點的으로 던진 지역은 全南大學校 바로 앞에 보면 約 30 내지 50m 떨어진 지점에 교량이 있습니다. 이 교량부근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집결해서 돌을 던졌는데 거기에서는 분명히 그날 던진 양의 돌을 바로 획득할 수는 없는 지역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大隊長은 거기에서 돌을 던지는 일부 학생들중에는 가방에서 직접 돌을 꺼내서 던지는 사람도 목

격을 했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戒嚴軍과 학생들이 충돌할 때 부상 당한 군인들이 있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병사들은 철모를 쓰고 방독면을 차고 또 총을 휴대하고 진압봉을 들고 군화를 신고 한 대단히 무거운 군장을 착용한 상태에서 뛰어가 봤자 학생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처음부터 約 50餘m의 거리간격이 됐고 합성을 지르면서 뛰어나가자 학생들은 바로 도망을 했기 때문에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시위학생들을 체포하거나 시위학생 가운데서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충돌이 없었으니까 체포도 할 수 없었고 다친 사람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吉弘委員 證人!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證人 權承萬 분명합니다.

○金吉弘委員 직접 목격하신 일이지요?

○證人 權承萬 목격한 사항입니다.

○金吉弘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錦南路 사항에 대하여 質問하겠습니다.

證인이 지휘하는 33大隊가 光州市內로 시위진압을 위해서 출동한 것은 몇 月 며칠 몇 時입니까?

○證人 權承萬 5月18日 16時頃에 錦南路에 도착을 했습니다.

○金吉弘委員 당시 시위가 악화 되었던 것은 시위대의 퇴로까지 막아버리는 소위 사주포위식의 一網打盡式 作戰을 5月18日 첫 출동에서부터 사용했기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5月18日 시위진압작전계획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그와 같은 작전 지시는 누가 下達한 것인지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證人 權承萬 먼저 간단한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命令下達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時30分頃에 師團長님께서 직접 500MD「헬기」를 타고 全南大 연병장에 오서 가지고서 命令下達을 하셨습니다.

命令下達 內容은 光州市內에 난리가 났다 지금 約 1,000餘名의 示威群衆이 격렬한 示威를 벌이고 있다 따라서 警察은 守勢的인 입장에 놓여있고 解散能力을 거의 상실한 것 같다 이번에 軍이 나가서 鎮壓을 못하면 큰 일이다. 너희들은 목숨을 걸고 데모를 解散하고 주동자 및 극렬행동자를 체포하라 하는 指示事項과 아울러서 命令을 下達을 했습니다. 이 命令內容은 要圖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듣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크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地域이 道廳地域입니다. 道廳을 중심으로 해서 노란 색깔로 칠해진 부분이 중요 道路입니다. 바로 직선으로 나있는 道路가 錦南路 右側으로...

○金吉弘委員 證人! 이왕 도표를 거렸으니까 당시의 示威群衆이라든지 또 戒嚴軍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證人 權承萬 종합적으로 다 이제 설명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右側의 道路가 忠壯路 左側의 道路가 재봉로입니다. 師團長의 部隊運營 개념에 대한 지시는 저희 33大隊는 錦南路에서 道廳 방향으로 진출을 하면서 示威를 解散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錦南路에서 車輛으로 移動을 해 보니까 高速「터미널」과 연결되는 이 지점 여기에 있을 때 저희가 示威를 하고 있는 상황을 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車輛을 하차해서 여기서 부터 도보로 이동을 해서 이 道路上에 청색 부분으로 표시가 된 이 地域에서 여기가 光州 韓日銀行支店에 4거리 지점입니다. 여기에서 저희 33大隊는 示威鎮壓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35大隊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35大隊는 錦南路 左右 道路에서 錦南路와 연결되는 중요 지점에 兵力을 배치해서 錦南路에서 분산되어 나오는 示威隊에 대해서 연행하고 데모를 鎮壓을 할 것이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차후에 이제 이것이 확인된 사항입니다마는 35大隊의 兵力配置 상황을 확인을 한 결과 忠壯路上的

청색 원으로 표시된 이 지점과 이 지점 이 지점에 각각 中隊別로 배치가 되었고 左側에는 「카톨릭센터」바로 옆으로 해서 저 위의 道廳 부근에서 부터 다음과 같은 지점 다섯 군데 中隊別로 兵力이 배치가 되어서 示威鎮壓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와같은 것이 당일 錦南路에서 作戰을 했던 部隊運營 개념입니다. 道廳쪽에는 警察이 일부 저희가 갔을 때 道廳으로 示威隊의 진출을 막고 있는 일부 인원이 차 지점에 그러니까 投資金融 지점 이 지점에 위치를 일부하고 있었습니다.

○金吉弘委員 退路를 막았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다시 해 보세요.

○證人 權承萬 退路를 막았다는 그 자체는 반드시 저희가 部隊運營을 할 때는 이와 같이 示威隊를 밀어붙이면 示威隊는 어디론가는 分散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어디론가는 갈 수 있는 逃避路를 내주는 것이 저희 特戰部隊의 示威鎮壓隊 部隊運用概念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兵力이 左右側으로 分散을 해서 나가봐야 左右側에 있는 요 35大隊兵力에 의해서 전부 다 충돌이 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완전무결한 逃避路가 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金吉弘委員 그런 결과를 證人이 豫測하면서도 왜 32師團長에게 그 不當性을 얘기하지 않았나요?

○證人 權承萬 왜 35大隊의 兵力配置事項은 저희가 차후에 확인을 한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와 같은 중요한 作戰任務를 수행을 하면서는 저희 軍人服務교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指揮官은 命令에 절대 복종해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을 수 없다는 項目이 明示되어 있습니다.

감히 저희 大隊長의 위치에서, 師團長님께서 저희에게 命令下達을 하시는 그 표정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光州市內가 심각하다 하는 상황을 認知를 했었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펴 수가 없었습니다.

○金吉弘委員 光州市內에 충돌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示威隊와 맞서게 되었으며 이 때 戒嚴軍과 示威隊의 충돌양상은 어땠습니

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대로 證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權承萬 물론 사실대로 얘기합니다.

저희가 아까 要圖에서 말씀드린대로 錦南路 韓一銀行 이 사거리地點에 도착을 했을 때 저기에는 약 한 1,000餘名の 示威群衆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示威群衆으로부터 100m 地點에서부터 宣撫放送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접근을 했습니다. 宣撫放送內容은 歸家를 하라는 그런 뜻이었고 또 특히 도로 양가에서 구경을 하는 그런 선량한 民間人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다칠까봐 이 분들 빨리 歸家를 하도록 또 권유를 했고 示威도 계속하게 되면 우리가 物理的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으니 자진해서 解散해 달라는 요구의 宣撫放送을 하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金吉弘委員 몇 차례 宣撫放送을 했습니까? 몇 시간동안 했습니까?

○證人 權承萬 저희가 거기에서 총 있는 시간이 약 한 40餘分 뿐이 안되기 때문에 宣撫放送을 한 시간은 약 한 15分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접근을 하는데 이 示威群衆들은 宣撫放送에는 전연 아랑곳하지 않고 많은 돌을 저희한테 던지면서 노래를 부르고 구호도 힘차게 제창을 하면서 解散할 기미는 전연 보이지를 않았습니

다. 이 분들이 던지는 돌은 수없이 많이 날아왔고 심지어는 左右側에 있는 建物 屋上으로 올라가서 던지는 분도 있었고 또 左右側 道路上에 民間人들이 있는 그 사이에 끼어서 돌을 던지는 분도 있었고 角木을 들고 앞에서 煽動하는 분들과 주위에 있던 公衆電話박스를 파손해 가지고 그것을 손에 휘둘면서 열렬하게 煽動을 하면서 저희와 對峙를 했습니다.

저희는 示威群衆으로부터 약 한 50餘m 地點에서 大隊가 전부 集結된 상태로 위치를 해 있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던지는 돌은 거의 80%는 누군가는 맞아야 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 피하면 뒤에 있는 사람이라도 맞습니다.

또 建物 屋上에서 던지는 돌들은 거의 어디에서 날아오는 방향도 저희가 探知하기 어려운 정도로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거

의 돌을 맞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宣撫放送을 꾸준히 하면서 이것도 되지를 않기 때문에 第2段階로 催淚彈을 사용을 해서 解散을 또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시 가지고 있었던 催淚彈은 지금 나온 것처럼 그렇게 성능이 별로 좋지 못합니다. 一名 사과탄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성능이 별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별 效果를 가져 오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돌은 계속 날아오고 解散의 기미는 宣撫放送 催淚彈을 사용해도 되지를 않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접 총들을 해서 解散을 시키는 방법뿐이 없다 라고 大隊長은 판단을 해서 大隊前面에 있는 約 70餘名의 人員을 직접 示威群衆속에 投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主動者를 連行하도록 했습니다.

— 連行을 하기 위해서 約 70餘名이 들어 갔을 때 통상 한 名을 連行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양쪽에서 손을 잡고 이렇게 끌고 우리 쪽으로 들어 오는 그러한 방법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가서 끌고 들어 오려고 하면 누가 쉽게 따라 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딱 버티고 잘 따라 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사 이에 주위에 있던 다른 學生들은 그냥 가서 우리 兵士들의 옆구리를 쥐어차고 이리 하는 바람에 이 兵士는 다시 처음에 잡았던 사람은 놓고 또 그 사람을 향해서 이제 또 잡기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에 이제 鎗壓棒도 서로 사용을 하고 치고 때고 하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70名의 人員을 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다시 바로 나머지 大隊 全人員을 投入을 시켰습니다. 이 人員들이 이제 큰 함성을 치르면서 힘차게 달려 나가 가지고 후에야 겨우 이제 데모가 解散이 됐는데 이 때 이제 人員이 많다보니까 앞에서 主動을 했던 要員들은 약간 名이 連行이 되고 뒤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다 分散이 되어서 이제 전부 흩어졌습니다. 이 시간이 16時40分頃に 완전히 解散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는 저희 大隊地域에서는 이제 더 이상 示威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金吉弘委員 됐습니다.

○證人 權承萬 예.

○金吉弘委員 出動 당시 部隊員들이 鎗壓을

위해서 필요했던 裝備는 무엇입니까?

○證人 權承萬 아까도 말씀을 드렸으나만 鐵帽을 쓰고 鎗壓棒을 손에 휴대하고 小銃은 뒤로 해서 메고 大劍은 탄띠에 부착을 한 상태로 裝備를 휴대했습니다.

○金吉弘委員 大劍을 직접 銃에 쏘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證人 權承萬 탄띠에 부착을 했습니다.

○金吉弘委員 그러면 銃위에 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證人 權承萬 예. 그렇습니다.

○金吉弘委員 그 때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基礎段階에서 大劍으로 말이지요 示威隊를 쫓았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市民들이 흥분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大劍部分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權承萬 예. 저희 大隊는 분명히 그 자리에서 大劍을 銃에 쏘은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데모 鎗壓을 하면서 저희는 大劍을 쏘아가고 市民들을 향해서 어떤 데모 鎗壓을 하는 그와 같은 것은 敎理上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다만 威力示威를 할 때는 이제 쏘아가고 威力示威를 합니다. 그러나 鎗壓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이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와 같이 평소 教育訓練을 하면서도 한 번 해 본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示威鎗壓을 하는 과정에서 大劍을 사용했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金吉弘委員 車를 타고 市內를 질주한다든지 ...

○證人 權承萬 예. 威力示威할 때는 ...

○金吉弘委員 部隊가 整列해서 威力示威를 한다든지 그 때 大劍을 착용할 可能性이 있다는 얘기지요?

○證人 權承萬 그 때는 大劍을 쏘아가고 車에 搭乘을 해서 좀 威嚴있게 이렇게 딱 들고 그리고 威力示威를 합니다.

○金吉弘委員 그 때 部隊員들이 實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實彈은 전부 駐屯地에 놔두고 휴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金吉弘委員 그 때 雙方間에 負傷者가 얼마

나 있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글세... 負傷者를 정확히 기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 大隊은 이제 重傷者가 한 15·6名정도 되었고 들을 한두 대 맞아 가지고 打撲傷을 입은 것은 大隊長 저를 비롯해서 거의 들을 안맞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軍人이 어느 정도 뭐 다쳐 가지고서는 저는 그것을 患者라고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示威學生들은 제가 이제 거기에서 連行을 했던 人員들을 전부 全南大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31師를 거쳐 가지고 戰敎司로 後送을 했는데 그 때 거기 駐屯地에 남아 있던 殘留隊長으로부터 報告를 받은 것은 約 한 30餘名이 일부 打撲傷을 입고 얼굴이나 머리부분이 좀 찢기고한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報告를 받았읍니다. 따라서 저는 그 다친 사람들을 다 치료를 해주고 특히 거기에는 衛生兵이 한사람뿐이 안남아 있었기 때문에 連行된 人員中에는 醫大生을 확인을 해보니까 5·6名이 全南醫大를 다니던 學生들이 있었읍니다.

그래서 요 人員들과 같이 해서 깨끗하게 다 치료해 가지고 31司에 報告하니까 戰敎司로 바로 當日 19時頃에 전부 後送을 시켰다 하는 報告를 받았읍니다.

○金吉弘委員 連行하는 과정에서 市民들이 보는 가운데 거칠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證人 權承萬 글세 어느 정도를 거칠게 했다고 하는지를 제가 잘 이해가 안갑니다.

○金吉弘委員 뭐 뺨을 때린다든지 뭐 구두발로 한번 찬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안그러면 示威를 했기 때문에 감정이 격해서 무수하게 구타를 했다는지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證人 權承萬 大隊長도 그렇고 또 敎育訓練을 하면서도 그렇고 大隊長위의 上級指揮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이 示威鎮壓하는 과정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나와 있는 하나가 市民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를 하지 말라 또 市民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를... 市民들뿐만이 아니라 구타를 해 가지고 머리가 터지거나 뭐해서 피를 흘리는 환자를 발생시키지 말라하는 것이 注意事項의 第1番

입니다. 따라서 連行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심한 몸싸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連行을 하기 위해서 참 鎮壓棒을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은 부득이하게 했습니다만 連行을 한 이후에는 그와 같이 해서는 안되고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金吉弘委員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證人의 部隊員들이 光州事態初期當時에 말하자면 18日 19日... 19日은 해당이 안됩니다마는 證人의 部隊는 18日 光州에 投入되었으니까 過剩鎮壓을 했기 때문에 光州市民의 분노와 호응을 야기시켰다는 주장이 一慣性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 자리에 나온 證人들도 過剩鎮壓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證人께서는 직접 現場을 指揮했던 一線指揮官으로서 空輸部隊員들이 過剩鎮壓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證人 權承萬 예. 저는 역시 33大隊長이었기 때문에 저희 33大隊가 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날 있었던 錦南路作戰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도 이 聽聞會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過剩鎮壓을 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저는 절대 過剩鎮壓을 하지 않았다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過剩鎮壓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지금 過剩鎮壓을 했느냐 안했느냐하고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는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앞서 제가 그 상황을 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상황속에서 人員으로 봤을 때도 示威群衆은 약 1,000餘名이 넘었고 저희는 다 합쳐 봐야 한 300餘名이 출동을 해서 任務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 글자 그대로 고양이 가 쥐를 잡는 식의 그런 過剩鎮壓을 했다고 하시는지 저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그와 같은 상황속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방법은 고려할 수 있었던 방법은 세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大隊가 그 위치에서 계속 무수하게 날아오는 들을 맞으면서 스스로 示威隊가 解散해 주기를 기다리는 방법하나하고 31師團長님의 命命을 지키지 않고 撤收를 해서 돌아

오는 방법하나하고 當日에 任務를 수행했던대로 強壓的으로라도 직접 충돌을 해서 師團長의 命令대로 데모를 解散시키고 示威主動者를 연행하는 방법 하나 이 세가지를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1番 2番에 대한 사항은 軍人으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첫번째 저희 兵力들이 그 무수하게 날아오는 돌을 계속 맞고 있으면서 데모를 자진해서 해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저는 참 우리 많은 國民들이 자기 아들들을 軍隊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軍隊에 보내는 아들들을 우리 指揮官들은 그 부모를 대신해서 잘 보호를 해서 이상없이 다시 부모 품에 돌려줘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많은 무수하게 날아오는 그 돌을 맞으면서 스스로 해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저는 指揮官으로서 우리 부하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었고 또 그대로 있는다 할지라도 앞서도 말씀드렸습니지만 스스로 해산할 기미가 전연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직접 충돌에 의한 데모해산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기록에 나와 있는 사항도 여러 委員님들이 잘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 死亡한 사람이 있다거나 또는 심하게 우리한테 맞아가지고서 重傷者로서 나와 있는 사람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저는 절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全人員을 戰敎司로 연행을 했을 때 거기에는 重傷者는 한 사람도 분명히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錦南路에서 실시한 이 作戰自體는 저는 過剩鎮壓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金吉弘委員 오래동안 訊問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委員長 文東煥 金吉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李光魯委員의 22分을 합쳐서 사용하셨습니다.

다음 趙贊衡委員 質問해 주십시오. 25분입니다.

○趙贊衡委員 예. 平和民主黨 趙贊衡委員입니다. 證人은 國民앞에 證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證人은 大領으로 진급이 언제 됐어요?

○證人 權承萬 84年度 7月1日附로 되었음

니다.

○趙贊衡委員 지금 다시 進級할 때는 안됐습니까?

○證人 權承萬 今年度부터 將軍進級 해당이 됩니다.

○趙贊衡委員 今年度부터...

證人의 部隊가 光州에 투입되기 전에 忠正作戰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忠正作戰訓練을...

○證人 權承萬 저희가 투입되기 전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趙贊衡委員 그렇지요.

○證人 權承萬 忠正作戰任務는 저희 特戰司令部任務에 忠正作戰의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平常時에도 계속해서 忠正作戰敎育은 하고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平常時부터 했던 말입니까?

○證人 權承萬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그 訓練內容은 대개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證人 權承萬 訓練內容을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양이 좀 많습니다. 우선 좀 위엄있게 보이기 위해서 隊形을 갖춰가지고 전진하고 뒤 또 뒤로 후퇴하고 하는 그런 隊形訓練 그다음에 示威群衆을 해산시키는 데 있어서 여러가지 해산시키는 방법 기타 예기치 않았던 어떤 突發的인 상황에 대비한 應用戰術訓練 이와 같은 것으로 구분을 해서 訓練을 하고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忠正作戰指針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指針...

○證人 權承萬 지금 忠正作戰指針하면 지금 될 의미하십니까?

○趙贊衡委員 強勁鎮壓이라고 되어 있지요? 強勁鎮壓...

○證人 權承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趙贊衡委員 射擊은 上部의 승인을 받아라 이런 것은 없습니까? 指針에?

○證人 權承萬 射擊에 대해서 저는 韓文句도 지금 본 기억이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忠正作戰指針에 射擊에 대한 文句는 본 일이 없다. 그리고 아까 證人이 證言한 중에 먼저 물어봐야 할 것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證人은 5月 18日 全南大 練兵場에서

31師團長을 만났다고 그랬지요?

○證人 權承萬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그것이 14時30分이라고 그랬지요? 14時30分 그 시간이 맞습니까?

○證人 權承萬 정확합니다.

○趙贊衡委員 15時30分이 아닙니까?

○證人 權承萬 아니 14時30分입니다.

○趙贊衡委員 그때 31師團長이 證人에게 무엇인가 준 것이 있다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證人 權承萬 저는 命令下達을 받은 것외에는 기억이 안 납니다.

○趙贊衡委員 특별히 준 것이 있다는데

○證人 權承萬 기억에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證人이 全南大를 점령한 任務는 무엇이었습니까?

점령 당시 점령하면서 부여된 임무...

○證人 權承萬 그 戒嚴擴大措置가 나면서 아울러 休校令이 같이 宣布가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學生들이 學校에 등교하고 하는 것을 막고 또 제가 알기로는 그이전에 이미 學校를 중심으로 해서 示威가 이루어지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示威根源을 없앤다는 뜻에서 學生들의 登校를 막고 大學을 占領해 갖고 있는 그런 任務였습니까.

○趙贊衡委員 大學 占據하고 또 學園內學生 歸家措置 또 學園內 主謀者 색출 이런 것들이었지요?

○證人 權承萬 예.

○趙贊衡委員 그와같은 任務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證人 權承萬 그와같은 任務는 7空輸旅團長한테 口頭로 도착과 동시에 그와같이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趙贊衡委員 언제 받았습니까? 7旅團長한테 그 任務를 언제 받았어요?

○證人 權承萬 17日 19時頃에 받았습니까.

○趙贊衡委員 17日 19時. 光州出動命令은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지요?

○證人 權承萬 그때 같이 받았습니까. 같이 명령을 받으면서 大學을 占領을 하고 그 이후에는 師團長에 네가 配屬이 되니 師團長의 지시에 의해서 作戰任務를 수행하라 하는 것이 7空輸旅團長의 지시사항입니다.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大學 占據와 동시에 學園內에서 몇명의 學生을 체포했습니까?

○證人 權承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정확히는 제가 기억이 안되는데 約 30餘名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33大隊가 체포한 學生數만 얘기 하세요. 35大隊는 얘기할 것 없고 여기 지금 戰鬪詳報에 보면 23名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證人 權承萬 한 30餘名 하여튼 되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30餘名. 그럼 그와같이 체포나 또 學生들을 歸家시키는 과정에서 뭐 구타타든가 苛酷行爲같은 그런 事例 없었어요?

○證人 權承萬 제가 확인을 못했고...

○趙贊衡委員 그런 事例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證人 權承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報告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人員이 몇명 안되기 때문에 저희 兵士들이 하는 그 지시에 상당히 잘 따라준 것으로 제가 지금 報告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어 그것을 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니까 證人이 具體的으로 學生들을 체포 歸家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정도의 불상사가 있었다 하는 것은 확인한 일이 없다는 얘기지요?

○證人 權承萬 확인은 했습니다.

○趙贊衡委員 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證人 權承萬 예.

○趙贊衡委員 분명해요?

○證人 權承萬 예. 분명합니다.

○趙贊衡委員 피해자들이 지금 많습니까.

○證人 權承萬 글썄. 제가 報告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報告를 받았습니까.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證人이 그와같이 學生들을 체포한 法的 根據는 됩니까?

○證人 權承萬 저는 法的 根據는 모릅니다.

○趙贊衡委員 전혀 모르고 上部의 지시에 따라서 체포만 했습니까?

○證人 權承萬 通常 저희들이 大學을 占領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 안에 있는 人員들을 일단 그렇게 전부 保護措置를 하도록 명상시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學生들을 체포해서 어떻게 措置했습니까?

○證人 權承萬 저희가 그렇게 保護措置를 하고 있다 하는 事項을 報告를 31師團에 하나 까 그것은 다음에 搜查機關에서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參謀系統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한 여섯時 내지 일곱時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機關에서 나와가지고 그 人員들을 그 사람들에 저희는 인계를 하고 끝났습니다.

○趙贊衡委員 어떤 機關입니까?

○證人 權承萬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憲兵이에요? 合搜部예요? 保安司예요?

○證人 權承萬 私服을 입었었기 때문에...

○趙贊衡委員 保安司입니까?

○證人 權承萬 그때 상황으로 보아서는 合搜部要員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趙贊衡委員 合搜部要員인 것으로 안다. 그 學生들을 어디로 데려갔는지 몰라요?

○證人 權承萬 저는 모릅니다.

○趙贊衡委員 모른다. 아까 證人은 5月18日 10時頃 全南大 正門地域에서 學生 한 200餘名이 그러한 示威學生에게 2個中隊兵力을 出動시켜 추적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지요?

○證人 權承萬 20餘名.

○趙贊衡委員 20餘名. 그러면은 그 20餘名을 아까 정문에서 부터 100m 정도 추적했다고 했죠?

○證人 權承萬 예.

○趙贊衡委員 證人이 부여받은 任務로써 그와 같이 추적이 가능했습니까? 정문밖으로

○證人 權承萬 가능합니다.

○趙贊衡委員 가능해요?

○證人 權承萬 예.

○趙贊衡委員 證人은 任務받은 것은 주동자 체포하고 學園內學生 歸家措置시키고 그리고 나서 學內에 命令을 받기 위한 대비를 하게 돼있는데 일체 그 이외 행위는 할 수 없도록 指示를 받고 있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證人 權承萬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證人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證人 權承萬 예. 저는 그 당시에 하나의 ...

○趙贊衡委員 本委員이 보기에는 그것은 확실히 命令違反입니다. 軍刑法上 命令違反으로 보는데 證人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證人 權承萬 글썽요. 저는 軍刑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任務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방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방해요소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고 완전무결한 任務遂行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趙贊衡委員 任務遂行을 위해서는 不法行爲를 해도 된다 그런 말입니까?

○證人 權承萬 저는 不法行爲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趙贊衡委員 생각을 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이 2軍狀況日誌를 보면 말이죠. 5月18日 소위 13時15分頃 全南大 후문을 통과하는 소위 30餘名이 탄 버스에 있는 그 學生들이 戒嚴軍 물러가라 하는 구호를 외친 사실이 있죠?

○證人 權承萬 몇時인지를 제가 지금 잘못 들었는데요.

○趙贊衡委員 5月18日 13時15分頃 2軍狀況日誌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묻습니다.

○證人 權承萬 예.

○趙贊衡委員 그래가지고 그 버스에 타고 있는 學生 30餘名을 全員 체포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權承萬 그런 報告를 받은 일 없고 저는 전연 기억이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전혀 그런 기억이 없습니까?

○證人 權承萬 예.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그 당시 市民들이 다 목격하고 여기 지금 2軍狀況日誌에 나와 있습니다. 33大隊가 全南大 후문에 버스를 타고간 學生 30餘名을 출동해 가지고 全員 체포했다는 이 근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大隊長으로서 證人은 모른다고 그래요?

○證人 權承萬 글썽요. 그 2軍狀況日誌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더이상 할 말이 없습시다만 그렇다면 戰敎司狀況日誌나 저희 7空輸旅團의 狀況日誌 31師團의 狀況日誌에도 나와있습니까?

○趙贊衡委員 이것은 2軍狀況日誌만 나와 있



읍니다.

○證人 權承萬 그렇다면 저는 반드시 일개 中領으로서 그렇게 엄청난 계단을 뛰어가지고서 2軍司令部에 報告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저는 31師團에 報告를 해야 됩니다.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그런데 市民들도 그 당시 다봤어요. 이 광경을 이것이 바로 光州抗爭의 불씨가 됐던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證人 몰라요?

○證人 權承萬 그렇습니까?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2軍狀況日誌에 나와 있는 자체를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趙贊衡委員 다음 7旅團戰鬪詳報를 보면은 5月18日 12時45分 33大隊는 31師團 96聯隊로부터 「카톨릭센터」앞 메모대를 鎮壓하라는 命令을 수령해 가지고 당일 15時40分 「카톨릭센터」앞에 가서 메모대를 鎮壓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억합니까?

○證人 權承萬 「카톨릭센터」가 아니고 제가 아까...

○趙贊衡委員 지금 7空輸戰鬪詳報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證人 權承萬 예. 그런데 그것이 師團長이 命令을 하시기를 그 「카톨릭센터」도 錦南路上에 있는거죠? 그렇죠?

○趙贊衡委員 그러면 우선 이것부터 묻겠습니다.

그러면 5月18日 12時45분에 31師團 96聯隊로부터 그와 같은 命令을 수령한 사실은 있습니까?

○證人 權承萬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없어요?

○證人 權承萬 예.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지금 저도 그 戰鬪詳報에 말입니다. 7旅團戰鬪詳報에 그와 같은 것이 나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96聯隊長한테 命令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면 이 戰鬪詳報는 허위로 작성했다는 얘기입니까?

○證人 權承萬 글썽 허위가 된 것인지 아니면 작성을 하는 사람이 착오를 일으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96聯隊長한테 제가 命令을 받아가지고서 12時 몇분에 출동한 사실이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런 사실 없다. 그러면 33大隊가 31師團 96聯隊에 配屬된 일은 있습니까?

○證人 權承萬 아,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있어요?

○證人 權承萬 예.

○趙贊衡委員 언제 되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그러니까 저희가 도착과 동시에 바로 31師團에서 다시 師團의 隷下部隊인 96聯隊에 저를 再配屬시켰습니다.

○趙贊衡委員 再配屬되었다 그 말이죠?

○證人 權承萬 예.

○趙贊衡委員 그런데 당시 96聯隊長 박동조大領은 96聯隊에 再配屬이 전혀 된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박동조大領의 確認書가 있어요.

○證人 權承萬 그 確認書 좀 잠깐 제가 봅시다. 좋습니다. 여기 확인서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趙委員님 개인적으로 저렇게 자기가 쓴 것하고 公式적으로...

○趙贊衡委員 證人은 지금 여기 戰鬪詳報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證人 權承萬 31師團 戰鬪詳報를 보십시오 거기에 96聯隊로 재배속된 사항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7空輸 戰鬪詳報에 엄연히 公文에 기재된 이 사실도 부인하고 있어요

○證人 權承萬 제가 뭘 부인하고 있습니까?

○趙贊衡委員 18日 12時45분에 96聯隊로부터 명명하달한 사실 없다고 했잖아요?

○證人 權承萬 趙委員님 제가 여기에서 진실을 말씀하기를 저는 委員長님한테 宣誓를 했습니다. 또 僞證을 하면 죄를 받는다고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무엇때문에 그 명명자체가 뭐...

○委員長 文東煥 證人! 證人! 여기의 法은 조사하는 것은 委員이 묻고 묻는대 대답하면 됩니다.

○證人 權承萬 예. 저는 잘 들었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읊으면 읊다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있으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다 그러면 됩니다.

그이상 필요없습니다. 證人은 묻는대 충실

하게 대답만 하세요.

○趙贊衡委員 다음 물겠습니다.

○證人 權承萬 그러나 잘못된 것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文東煥 아니라고만 하면 됩니다.

○證人 權承萬 알겠습니다.

○趙贊衡委員 또 잘 들으세요. 7旅團 戰鬪詳報를 보면은 33大隊는 5月18日 16時30分으로 일단 作戰終了가 되었지요?

○證人 權承萬 예.

○趙贊衡委員 틀림없습니까?

○證人 權承萬 앞서도 말씀드렸음니다마는 30分에서 40分...

○趙贊衡委員 예나 아니나 그것만 答辯하세요

○證人 權承萬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면 5月18日 16時부터 5月18日 16時30分까지 20分間 작전한 것입니까?

○證人 權承萬 대략 그렇게 되겠습니다.

○趙贊衡委員 그 작전 결과 몇명을 연행 체포했습니까?

○證人 權承萬 한 100餘名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103名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證人 權承萬 예. 맞습니다.

○趙贊衡委員 그 103名中에는 學生이 몇名 市民이 몇名 여자가 몇명이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그것은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 103名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순순히 다 연행했습니까? 아니면 가혹행위가 있었습니까? 심한 가혹행위가 있어가지고 머리가 터진 사람 배가 터진 사람 등등 부상자가 속출했다는데 證人 알고 있어요?

○證人 權承萬 예.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趙贊衡委員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것만 얘기하세요.

○證人 權承萬 앞서도 말씀을 드렸음니다마는 그와같은 심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머리가 터지고 또 상처가 좀 나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금 趙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배가 터진 사람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趙贊衡委員 머리터진 사람은 있었는데 배가 터진 사람은 없었다

○證人 權承萬 없었습니다.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그 체포된 사람들을 전부 어떻게 조치했지요?

○證人 權承萬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趙贊衡委員 證人이 아까 얘기한 것은 大學校에서 검거된 學生들이고 지금 이것은 16時부터 16時30分까지의 연행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치에기입니다.

○證人 權承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전남대학으로 전부 후송을 했습니다. 후송을 해서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일부 머리가 터지고 한 사람을 목격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다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거기에 남아있는 單位隊長한테 지시를 해서 그와같은 조치를 한 이후에 31師團에 보고를 하니까 戰敎司로 직접 후송을 해라 해서 戰敎司로 후송을 했습니다.

○趙贊衡委員 후송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후송한 다음에야 저는 모르지요.

○趙贊衡委員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證人 權承萬 그것 뭐 죽어야 했겠습니까? 말쑥한 사람이 왜 죽습니까?

○趙贊衡委員 또 어디로 수용되었는지도 모르고 그 뒤에는...

○證人 權承萬 어디로 수용되었는지는 모릅니다.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戰敎司 狀況日誌 그리고 2軍 狀況日誌 戒嚴司令部 狀況日誌에는 5月18日 20時15分頃에 또 「카톨릭센터」 시위학생을 진압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사실입니까?

○證人 權承萬 몇 시간인지 제가 잠깐...

○趙贊衡委員 5月18日 20時15分 「카톨릭센터」 앞에서요

○證人 權承萬 「카톨릭센터」앞에서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런데 戰敎司 狀況日誌 2軍 狀況日誌 戒嚴司令部 狀況日誌는 분명히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證人 權承萬 7空輸旅團 33大隊로 되어있습니까?

○趙贊衡委員 맞습니다.

○證人 權承萬 그것 한번 제가 볼 수 있겠

읍니까?

○趙贊衡委員 복사가 아니라 요약해서 한 것만 가져왔는데 이것만 보여줘도 되겠습니까?

○證人 權承萬 아니 戰鬪狀況日誌를 좀 한번 제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證人 權承萬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없다. 20時15分 戰敎司 狀況日誌... 좋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5月18日 오후 4時에 柳洞 삼거리에서 수창國民學校를 지나가지고 東亞日報支社앞 횡단보도에 간部隊가 어느 部隊입니까? 5月18日 오후 4時...

○證人 權承萬 오후 4時면 저희 大隊하고 7空輸旅團 35大隊인데 제가 자금 수창國民學校 자체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여기 要圖를 해서 지적을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趙贊衡委員 그당시 東亞日報支社앞 횡단보도라고 그랬습니다.

○趙洪奎委員 錦南路 제일 밑에 좌측이 수창 국민학교예요. 柳洞 삼거리 왼쪽이 수창 國民學校입니다.

○證人 權承萬 글씨 잘 모르겠습니다.

○趙洪奎委員 대치했다는 곳 있지요? 제일 처음 진주한 곳...

○趙贊衡委員 約 450m 뒤로 옵니다.

○證人 權承萬 그러면 저희 大隊은 아닙니다.

○趙贊衡委員 立法審議官! 이것 갖다주세요. 이것이 戰敎司 狀況日誌입니다. 20時15分 시위학생진압사진 보고입니다.

○證人 權承萬 20時15분에 「카톨릭센터」앞 지금 말씀하시는 것 이지요?

○趙贊衡委員 예.

○證人 權承萬 거기에 部隊가 7空輸旅團 33大隊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趙贊衡委員 35大隊은 거기에 진압한 일이 없어요? 7空輸는 7空輸지요?

○證人 權承萬 글썩요. 35大隊에서 한 상황을 저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委員님한테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정확히 答辯 못 드리겠는데 분명히 저희 33大隊은 이 시간에 「카톨릭센터」에 가서 한 일이 없는 것만은 분

명합니다.

○趙贊衡委員 또 國軍 狀況日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證人 權承萬 예.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아까 質問에 이어서 묻겠습니다.

5月18日 16時 아까 얘기한 것 처럼 柳洞 삼거리에서 수창民學校 그 보도에 이르러서 첫작전을 시작한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權承萬 그 보도블럭에서는 저희는 작전을 안 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 보도블럭에는 어느 部隊가 갔습니까? 그 당시 16時...

○證人 權承萬 그러니까 지금...

○趙贊衡委員 35大隊가 간 일이 없습니까?

○證人 權承萬 그것은 정확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렇습니까?

○證人 權承萬 예.

○趙贊衡委員 證人은 혹시 東亞日報 김영택記者가 쓴 취재수첩이라는 것을 읽어 본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權承萬 읽어 보지 못 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때 東亞日報支社앞 횡단보도에서 첫작전할 때 指揮官이 거리에 나와있는 사람은 전원 체포하라.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證人 權承萬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바로 그 당시 그 指揮가 光州市民死藏의 첫신호였고 그야말로 그 한마디가 6·25후 우리 現代史에서 가장 처절한 비극으로 이어지는 소위 光州抗爭을 알리는 화려한 휴가라는 작전명령의 첫출입을 했습니다. 그런 지시명령을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證人 權承萬 들어본 일이 없고 저희 指揮官들이 그렇게 묻지 못하고 또 무식한 그런 指揮官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거리에 나와있는 市民들을 모조리 잡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指揮官으로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趙贊衡委員 좋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空輸部隊들은 시위학생 뿐만아니라 거리는 사무실이든

주책이든간에 꿩다고 보여지는 사람만 보이던 男女를 가리지 않고 두들겨대고 잡아끌고 심지어는 도망가는 市民들을 뒤를 쫓아가서 곤봉과 총검으로 무자비하게 쳐서 개꿀뚫 끌어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 證人 어떻게 생각합니까?

○證人 權承萬 趙委員님! 그것은 어디에서 들으신 내용입니까?

○趙贊衡委員 이 김영택記者가 쓴 취재수첩에 記載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證人에게 사진 몇장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5月19日 空輸部隊가 무고한 市民을 팬티바람으로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證人에게 제시하겠습니다.

○證人 權承萬 가지고 오는 동안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記者가 어떤 내용을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指揮官들이 앞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그렇게 묻지각하고 그렇게 무식한 행동을 하는 指揮官은 없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진 좀 보겠습니다.

○趙贊衡委員 그 사진을 보시기 전에 바로 아까 얘기한 김영택記者가 바로 그 記者가 목격한 참혹한 장면을 읽어드릴 테니까 사실인가 아닌가 證人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5月18日 錦南路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證人 權承萬 錦南路 어디입니까?

○趙贊衡委員 택시에서 끌려 나오자마자 신랑은 무자비한 몽둥이와 장작개비 그리고 軍靴발 세례를 받았다 이유도 없었다. 순식간의 일이었는데 신랑은 아이구 눈이야! 하고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눈을 붙잡고 땅바닥으로 뒹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맞고 채였는지 눈알이 빠져버렸던 것이었다. 그는 죽겠다고 소리질렀다. 신부도 軍靴발로 채였는지 한복은 엉망이 된채 갈기 갈기 찢어져 있었다. 사람살려! 신부는 자신의 물결은 돌아보지도 않고 땅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신랑을 붙잡고 영영 울며 절망적으로 울부짖었다. 이 짱년! 軍人들은 또다시 신부를 견어차며 육지거리들 하더니 빨리 꺼져 하고 소리를 쳤다.

불과 한時間도 안되고 몇 10分前 「웨딩마치」를 울리며 행복한 내일을 꿈꾸며 結婚式을

울린 新婚夫婦 은 세상이 모두 자기것인 양 웃음꽃이 활짝 피었을 이들은 첫날밤을 맞기도 전에 끔직한 일을 당하고 만 것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날벼락이었다.

이것이 한 예입니다.

이런 장면을 證人은 그 당시 본 사실이 있습니까?

○證人 權承萬 제가 들어봐도 지금 趙委員님께서 읽으신 내용을 들어 보니까 대단히 참 처량하고 안타깝고 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光州特委에서 진실을 확인을 하시기 위해서는 記者들이 쓴 그 내용도 존중을 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마는 직접 現場에 나가서 任務를 遂行한 저희 大隊長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 내용상으로 보아서는 대단히 참 안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報告를 받았거나 제가 그렇게 한 일을 목격한 일이 없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매듭을 지어 주세요.

○趙贊衡委員 끝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아까 사진을 보라고 말씀하셨지요?

○證人 權承萬 예, 저도 깜박 잊었습니다.

여기 날짜를 보니까 5月19日 지금 장면인데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었습니다마는 제 任務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5月14日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 그런 任務를 수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戰鬥詳報를 한번 꼭 보시면 아마 이해가 가실 줄로 믿고 있는데 저는 본 일이……

○趙贊衡委員 다른 大隊일 것이다 그 말입니까? 33大隊의 소행은 아니다……

○證人 權承萬 여기 사진에 보니까 물론 이제 저희 얼룩무늬 옷을 입은 것을 보니까 저희 空輸部隊要員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냥 데리고 가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시는데로 그렇게 눈이 튀어나오도록 때리고 하는 장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趙贊衡委員 證人이 볼때…그 사진 보세요.

「팬터」차림으로 數名을 옷을 벗겨가지고 데리고 가는 장면이지요?

○證人 權承萬 예, 그렇습니다.

○趙贊衡委員 그 장면을 보여 드리는 것입니다.

○證人 權承萬 저는 지금 두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趙贊衡委員 「팬티」차림으로 왜 「팬티」차림으로 끌고 갔을까요?

웃을 다 벗기고... 그대로 連行 안 되었을까요?

○證人 權承萬 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趙贊衡委員 추측은 필요없고 證人! 진실대로만 얘기 하세요.

○委員長 文東煥 매듭을 지어 주십시오.

○趙贊衡委員 예. 매듭을 하겠습니다.

7空輸 戰鬪詳報를 보면 光州抗爭期間동안에 사용된 彈藥消耗量이 TNT가 25「파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M60機關銃이 925發 66「로우로켓」가 260發이 되어 있습니다.

이 TNT와 66「로켓」 260發은 어디다 사용했습니까?

○證人 權承萬 사용한 일 없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런데 戰鬪詳報에는 왜 그렇게 기재되어 있습니까?

證人 보여 드릴까요?

○證人 權承萬 제가 설명 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를 저도 한번 들었습니다. 聽聞會하는 과정에서 TNT 「크레모아」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저희는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서 수령하고 어찌고 하는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없었고 당시 7空輸旅團 軍需參謀가 戰敎司에 나와 있었었습니다.

戰敎司에 나와 있는데 그 軍需參謀를 제가 만나가지고 너 이와 같은 것을 수령한 일이 있느냐 하고 물어 보니까 수령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나는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해서 물어 보니까 이것을 수령을 해서 旅團에서 가지고 있다가 66「미리로우」랄지 이런 것은 저희는 그 당시 한발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런 武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몽땅 다 그대로 旅團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敎育用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이것을 수령을 했으면 사용

을 안 했으면 戰敎司에 반납을 해주었으면 이것이 다시 그 기록이 정정이 되어 가지고 삭제가 되었을텐데 報告를 안 하고 그대로 旅團本部로 가져와서 거기서 敎育用으로 사용을 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용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해당 실무자가 수령한 사람한테서 제가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저희 大隊長들은 받아 보지를 못했습니다.

○趙贊衡委員 그러니까 戰鬪詳報에 기재된 彈藥消耗도 역시 또 虛僞로 기재 되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證人 權承萬 지금 이 내용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중에 다 조사하실 것 아닙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趙贊衡委員 이상 質問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新民主共和黨의 金仁坤委員 訊問해 주십시오.

20分입니다.

○金仁坤委員 新民主共和黨所屬 金仁坤委員입니다.

證人! 證人은 지금 大韓民國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軍人으로서의 軍服을 입고 앉아 계십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 지금도 이 추위에 일선에서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證人의 후배가 몸부림치다시피 愛國心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證人의 한말 한 마디가 만일 虛僞가 있다면가 어떠한 者의 使賊을 받았다는가 證人이 잘 아시다시피 12.12이후로 全斗煥一黨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요?

이런데 어떠한 사심이 있다면가 이렇게 될 때는 證人뿐 아니라 명예스럽고 아까운 우리 軍人의 명예에 관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머리속에 상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證人 權承萬 알겠습니다.

○金仁坤委員 本委員이 지금부터 證人의 기여를 되살리기 위해서 5月21日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5月21日 부처님 오신 날 空輸部隊의 市內配置狀況을 特戰司 戰鬪詳報에 의거해서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33大隊는 20日 18時10分 宿營地인 全南大를

떠나 朝鮮大로 移動하라는 命令을 받고 同日 21時20分 朝鮮大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셨지요?

○證人 權承萬 예.

○金仁坤委員 그리고 21日 9時頃인데 證人의 部隊가 11空輸旅團에 配屬되었지요?

○證人 權承萬 예. 그렇습니다.

○金仁坤委員 그 후로 11旅團의 作戰指示를 받았습니까?

○證人 權承萬 받았읍니다.

○金仁坤委員 그때부터서...

○證人 權承萬 예.

○金仁坤委員 좋습니다. 당시 3空輸旅團은 10時부터 16時30分까지 全南大에 있었고 20師團은 外郭封鎖業務를 맡고 있었읍니다.

○證人 權承萬 예.

○金仁坤委員 그러므로 21日 道廳과 錦南路에는 第11空輸旅團과 11旅團에 配屬된 33大隊 그러니까 證人의 部隊가 되겠읍니다.

그리고 35大隊가 示威鎮壓을 擔當했읍니다. 그러셨지요?

○證人 權承萬 예.

○金仁坤委員 證人! 이 指揮하던 33大隊도 21日 19時30分 朝大에서 주담으로 撤收하기 전까지 朝鮮大一圓 및 道廳錦南路一帶에서 示威鎮壓에 出動이 되었었지요?

○證人 權承萬 저희 大隊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金仁坤委員 예.

○證人 權承萬 朝鮮大에서 任務를 遂行했고 道廳地域은 근처에도 안갔읍니다.

○金仁坤委員 아! 그날 안가셨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느 部隊가 거기를 示威鎮壓에 動員이 되었습니까?

○證人 權承萬 11旅團 61·62·63 3個大隊와 7空輸旅團 35大隊 이렇게해서 4個大隊가 道廳에서 示威鎮壓任務를 遂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仁坤委員 아 그리고 33大隊는 역시 계속해서...

○證人 權承萬 朝鮮大學校에 있었읍니다.

○金仁坤委員 朝鮮大에 계속 있었다 그 말씀이지요?

○證人 權承萬 예.

○金仁坤委員 그런데 문제는 지금 概括的인 문제가 좀 되겠읍니다마는 사람은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이 많습니다. 또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죽이라고 命令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狀況이 벌어져있는 狀況속에서 우리가 民族和合을 위하고 이 다음에 이러한 불행한 事態를 다시는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찾아서 누구를 死刑을 시키겠다든가 이런 意圖는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狀況속에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저는 그 당시에... 現地에서 거의 目擊을 했고 또 다시 參考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부터 約 1時間半前에 그 聯隊에서 勤務했던 金某라고 하는 그러한 그 下士가 光州에서 직접 지금은 나타날수 없지만 이런 狀況을 그 戰鬥에 參加했던 그 사람이 提報해 준 일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狀況圖를 잠깐 보여 드리겠읍니다.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部分에 따라서는 證人에게 해당이 되지 않은 문제도 있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概括的인 狀況을 보기 위해서 지금 대충 그런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證人 權承萬 예.

○金仁坤委員 지금 柳洞3거리에서 지금 APC 裝甲車 한 臺가 서있지요?

○證人 權承萬 예. 그림상에 나와있읍니다.

○金仁坤委員 예. 거기서 점선으로 쪽 보면 道廳 분수대를 돌아서 지금 道廳으로 들어가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그 앞에 6番이라고 써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空輸部隊 그림 두個가 그려져있고 그 다음에는 警察官이 配置해 있었읍니다. 이것을 돌파해서 여기로 들어갔읍니다. 이러한 동안에 市民들이 여기에서도 하나의 疑訝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自動車... 「탱크」위에는 大型太極旗 計劃的으로 어디에서 가져온 大型太極旗를 가지고 있던 그 少年 한사람이 서있었읍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市民이 疑訝心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지금 特殊한 裝甲車입니다. 이 물이면... 보통 自動車가 아니지 않습니까?

○證人 權承萬 예.

○金仁坤委員 이 運輸을 하는 技術이 굉장히

능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꼭 그렇다고 해서 空輸部隊의 作戰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除隊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光州市民은 거기에 그렇게 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쪽으로 돌진하는 過程에서 一時에 發射를 해가지고 그 少年을 殺傷을 시켰습니다. 아시겠습니까?

○證人 權承萬 예.

○金仁坤委員 그리고 난 다음에 1番이라고 써진 左側에... 右側에 지금 1番이 써있지요? 잘 안보이십니까?

○證人 權承萬 예. 저는 잘...

○金仁坤委員 제가 說明을 해드리죠.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 證人의 얘기는 뭐. 鎮壓過程에서도 과거하게 다른 일도 없고 사람을 때린 일도 없고...

○證人 權承萬 때린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金仁坤委員 가만히 계세요.

죽인 일도 전연 없고. 그러면 한 사람도 안죽었어야 될텐데 내가 지금 이것을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番에 보면 道廳 2層에서 空輸部隊의 照準射擊으로 인해서 진정태라고 하는 당시 24歲의 청년이 자기 방 2層에서 맞아서 卽死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寫眞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生々한 모습이고 발랄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메모」라든가 어떠한 反抗이라든가 市內에 나간 일도 없는 사람입니다.

○證人 權承萬 예.

○金仁坤委員 아시겠습니까? 저는 證據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2番에 걸가던 市民 1名이 아까 보니까 그 곳에서 왔던 그러한 戒嚴軍의 銃彈에 맞아서 卽死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番을 보면 지금 분수대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 황호정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거기가 都心「빌딩」자기 5層 自宅에서 당시에 64歲 먹은 사람이 아까번에 쏘았던 그 位置 道廳 2層에서 空輸部隊가 쏘았던 2銃에 맞아서 자기 방에서 卽死를 했습니다. 또 4番을 보세요 4番을 보시면...

○證人 權承萬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番號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金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는 지금 무슨 內容인지를 도대체 지금 모르겠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어쨌든 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자기 안방에서 자기 집에서 몇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과 그 寫眞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선호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46歲인데 무등면서... 계단에서 역시 戒嚴軍의 銃에 맞아서 卽死를 했습니다. 또 그 「탱크」있지요? 「탱크」거기하고 지금 「카톨릭센터」 屋上과의 거리는 約 300「미터」 이상이 되는 데와 또 아까 번에 얘기했던 道廳 2層과 餘他的 地域에 配置했던 그러한 空輸部隊들이 一齊射擊을 加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市民軍이라고 自稱하는 사람들이 武器를 가졌었느냐 그 당시까지는 武器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칼빈」銃 7挺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稅務署에서 豫備軍銃을 奪取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까지는 市民이 한방의 銃도 쏘아 본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황호정씨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이렇게 「메모」하실 분도 아닙니다. 64歲가 되는 분이고 아까번에 그 김정태라고 하는 사람은 또 이 사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한번 갖다가 쬐요... 보셨습니까?

○證人 權承萬 예. 보았습니다.

○金仁坤委員 아마 그것은 거짓말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면 제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요... 지금 아까번에 얘기 하다시피 이러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과정에서 그 聯隊에 勤務했던 金某氏라고 하는 下士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 지금 事務所로 電話가 왔습니다. 約 40分동안 저희 秘書官하고 같이 電話를 通話했는데...

○證人 權承萬 저희 大隊에 勤務했던 軍人입니까? 7空輸旅團 33大隊...

○金仁坤委員 그러니까 33大隊는 아니더라도... 그것까지는 밝히지를 本人이 않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밝히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證人 權承萬 기왕이면 몇 大隊였는지 밝혀

주시면...

○金仁坤委員 글썽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아직도 여러분들한테 威壓滅을 느껴서 그렇게 되겠지요.

그때에 자기가 그 당시에 勤務했던 그 APC 裝甲車가 突進하는 과정에 一齊射擊! 하는 命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射擊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보다 보다 담담하니까 射擊命令을 했고... 그것은 분명히 大隊長이 했다는 것입니다. 大隊長 命令에 의해서 射擊命令을 받았고 그래서 射擊을 했고 그래서 죽었는데 한 사람도 射殺했다고 그런 사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만일 그 사람이 나타났고 그것이 事實로 判明되었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밤잠 안자면서 까지 이런 고생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래서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事實이 歷史적으로 事實이 밝혀질 날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만일... 射擊을 한 것은 事實이 아닙니까? 어떠한 狀態로라도... 어떻습니까? 證人...

지금 말씀드린 그날 그날 사람이 道廳 앞에서 상당한 숫자가 死亡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貴 部隊가 證人の 部隊가 거기에 駐屯해서 戰鬪를 안했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러한 狀況은 연락을 받았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戰鬪狀況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證人 權承萬 지금 金委員님께서 자세하게 꼭 설명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읍니다만 저는 지금 이 位置에 나가서 任務를 修行을 하지 않을 것이고 또 金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꼭 번호를 붙여서 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金仁坤委員 그러면 더 상세하게 볼 수 있는 이것을 보세요.

○證人 權承萬 지금 저한테 質問을 하시는 그 要旨를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만 저한테 質問한 要旨를 다시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면...

○金仁坤委員 지금 要旨를 말씀드리자면 貴 部隊는 거기에 配屬되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

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認定을 하겠읍니다.

그러나 貴 部隊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 두 사람도 아닌 그 많은 사람들이 武器도 없는 市民이 殺傷을 당했는데 그 옆에서 道廳이라고 그러면 朝鮮大하고 몇개 안되지요?

○證人 權承萬 예. 알겠읍니다.

이제 質問하신 趣旨를 알겠읍니다.

○金仁坤委員 그런 狀況을... 인제서 알겠어요?

○證人 權承萬 예. 이제 알겠읍니다.

○金仁坤委員 아 그 참 늦게 아시는 습관이 있군요.

○證人 權承萬 좀 확실하게 제가 알고 答辯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경솔한 짓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金仁坤委員 가만히 계세요. 그러시면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시간이 아주 없읍니다.

○證人 權承萬 예. 제가 答辯을 드리겠읍니다.

○金仁坤委員 그러니까 너무 戰術적으로 時間을 끌려고 하지 마시고 答辯해 달라는 것만 해주세요.

○證人 權承萬 예.

○金仁坤委員 常識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軍生活를 몇년하고 계십니까?

○證人 權承萬 將校 任官한지가 23년됐읍니다.

○金仁坤委員 士兵부터서 들어가셨습니까?

○證人 權承萬 아닙니다. 敎育받은 期間을 빼고 任官된 것이 23년되었읍니다.

○金仁坤委員 23년이라고 한다면 軍隊로서는 아주 내용들 잘 아시겠네요.

○證人 權承萬 예. 그렇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런데 常識적으로 생각할때 射擊命令이 없는 狀態 속에서 그야말로 그 部隊員들이 그렇게 射擊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證人 權承萬 示威鎮壓을 하는 과정에서...

○金仁坤委員 가만히 계세요. 그것도 그 사람들이 만일 그 軍人들이 자기 生命에 威脅을 느낄 수 있는 狀況이라고 한다면 自衛行爲라고도 볼 수가 있읍니다.



그러나 武器가 없는 狀況 속에서 또 그것도 그런 狀況이 아닌 가운데에서 自衛權行使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一般 常識이지요?

○證人 權承萬 武器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射擊을 했다면 그것은 自衛權行使가 아니지요.

○金仁坤委員 그렇지요? 그것은 殺人이지요?

○證人 權承萬 예.

○金仁坤委員 그것은 아주 良民을 殺傷한 것이지요?

이러한 事實이 아무리 이해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누그러져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해지지 않는 事實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밝혀져야만이 우리가 和合을 하고 다시는 이런 짓을 안하도록 制動을 걸고 또 우리가 다시 反省을 하고 우리 民族의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證人이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射擊을 한 것은 命令이 없이는 射擊할 수가 없다 한두 사람이 誤發을 하든가 어떤 感情에 의해서 精神錯亂이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해서 射擊을 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一齋射擊을 해가지고 아까번에 얘기했던 事實이 틀림없는 事實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射擊命令이 없이는 射擊할 수가 없다 이것이 一般的인 常識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묻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證人 權承萬 지금... 저도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金仁坤委員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證人 權承萬 이 內容에 대해서 確認을 金委員님께서 하신 것은 7空輸旅團의 몇 大隊인지는 모르지만 某下士한테 지금 들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습니까. 그러셨지요?

○金仁坤委員 그것만이 아닙니다.

○證人 權承萬 그런데 이 7空輸旅團의 下士가 그 內容으로 보서는 光州의 道廳앞의 一帶의 지금 相當地域에서 일어났던 狀況인데 과연 어떻게 해서 어느 한 위치에 있어야 할 그 下士가 이렇게 자세한 內容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疑心이 1次的으로 가고...

○金仁坤委員 證人!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作成한 時期는 그 사람이 말하기 이전에 제 자신도 보았고 光州市民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認知한 狀況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證人 權承萬 그러면 이것을 金委員님께서 직접 그리신 것입니까?

○金仁坤委員 그렇습니다.

또 한사람이 직접 본 사람이 道廳의 公務員으로 있던 사람이 그 狀況을 그려왔습니다. 다시 整理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證據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지금 그것을 당초에 저한테 가지고 왔고 내가 알고 한 것 이외에 다시 電話로 아까번의 金下士라고 하는 사람이 강조를 한 것입니까? 아시겠습니까?

○證人 權承萬 예. 다 알고 있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래서 參考로 다시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證人 權承萬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우리 道廳앞에 있었던 우리 示威隊 要員들이... 아니 저희 戒嚴軍要員들이 無差別 射擊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연 武器말지 이런 것을 휴대함이 없이 걸 거리에 나와서 示威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寫眞提示하신 대로 우리 銃彈에 맞아서 死亡을 하셨다 하는 그런 內容이신데 저는 지금 여기 道廳앞에 나가있지를 못했기 때문에 과연 어느정도 제가 射擊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射擊을 한 狀況을...

○金仁坤委員 좋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證人 權承萬 저도 말씀을 좀 드려야지요.

○金仁坤委員 가만히 계세요.

貴 大隊가 거기 配屬 안되었다고 하면 지금 證人은 그 責任질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물어보는 것은 軍人으로서 常識的으로 생각할 때 一齋射擊을 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命令없이 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命令이 있었을 것이다 또 있었다고 證人이 나타났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歷史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말할 수가 없지요?

○證人 權承萬 예.

○金仁坤委員 그리고 한사람 두사람이 아니고 지금 아까번에 네사람 얘기를 했고 세사람은 사진까지 提示를 했습니다. 그것을 볼 때 틀림없이 자기 안방에서 죽었고 자기 2層 방에서 죽었고 계단에서 죽었고 武裝도 안한 사람이야 示威도 안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이것은 분명히 照準射擊을 했다...

○證人 權承萬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仁坤委員 가만히 제세요.

문는 말만 對答하세요.

○證人 權承萬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金仁坤委員 이보세요. 對答의 필요가 없으면 안해도 돼요. 제가 지금 묻지를 않았어요. 묻지를 않았다 그거야. 狀況을 이야기하면서 國民과 더불어서 이 狀況을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너무도 33大隊長이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狀況까지를 파악해서 判斷을 하는 요지로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證人 權承萬 그럼 그렇게 結論을 내놓으셔 놓고 지금 저를 앞에 앉혀놓고 말씀하실 이 유가 없지 않습니까?

○金仁坤委員 그러니까 대답하라고 하면 대답하고 대답을 요구안하면 대답을 안하면 돼요. 아까번에 常識의으로 생각할 적에 命命 없이 그런 良民을 射殺할 수가 없다 만일에 그랬다면 이것은 분명히 良民을 射殺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에요.

○證人 權承萬 조금 전에 金委員님께서 저한테 答辯을 하시기를 요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答辯을 지금 제가 하는 중간에 金委員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해나가시면서 저한테 答辯하실 지금 時間을 안 주시는 것입니다.

○金仁坤委員 證人! 證人에게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戰鬪에 參加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具體的인 答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常識의 문제를 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光州市民이 보고 있고 보았고 세상이 알고 있고 證據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생각

을 합니다 앞으로 證人! 분명하니 現場에 없었다고 하니깐 없었던 것으로 지금 지나가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앞으로 있었다면 그것은 責任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證人 權承萬 그러면 왜 물으셨는지 그것 하나 다시 여쭙어봐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文東煥 아니... 제가 얘기하지요. 證人!

○金仁坤委員 묻는 것은 내가 묻는 거예요. 묻기는 내가 물어요.

○證人 權承萬 저도 한마디만 딱 말씀을...

○金仁坤委員 듣고 싶지를 않아요

○證人 權承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金仁坤委員 안듣겠어요

○委員長 文東煥 證人!

(場內騷亂)

조용히 하세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證人 權承萬 저를 상대로 해서 한 20餘分間 말씀을 하시고 저는 答辯할 수 있는 時間을 단 1分도 안 주신다는 것이...

○金仁坤委員 答辯을 要求하지 않은 거예요.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證人! 證人!...

○證人 權承萬 아이 戰鬪詳報에 보면 제가 처음부터 여기에 없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 쪽 말씀을 하셨습니다.

○金仁坤委員 그렇기 때문에 묻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묻지를 않은 것이라고 말이에요.

(場內騷亂)

○委員長 文東煥 조용히 하세요.

委員長이 이제 정리합니다. 委員長이 정리합니다. 모두 조용히 하시고... 證人도 委員長의 이야기 들으십시오 金仁坤委員이 質問하다가 거기 계시지 않은 것을 알고 그 사실은 取下했습니다 그리고 되어진 것을 대체로 이야기하면서 이럴 수가 있겠느냐 그런 것이라면 그런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交通이 됐기 때문에 그이상 더 물을 필요를 느끼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서는... 이제는 12時가...

(場內騷亂)

아무튼 이 質問順序에 대해서는 金仁坤委員

이 責任이 있고... 조용히 하세요. 이 質問에 대해서는 項目에 대해서는 金仁坤委員이 이렇든 저렇든...

○鄭昌和委員 聽聞會는 듣는거예요.

○委員長 文東煥 鄭昌和委員!

(場內騷亂)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이제는 子正이 되었습니다. 次數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次數를 變更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證人에게 여쭙어보겠습니다. 次數를 變更해서 계속 訊問하는데 대해서 異議가 없으시죠?

○證人 權承萬 예. 좋습니다

○委員長 文東煥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會議를 마치고 잠시 후 21次 會議를 開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散會를 宣布합니다

(23時59分 散會)

○出席委員

文 東 煥	金 吉 弘	朴 燬 泰
辛 卿 植	沈 明 輔	安 榮 基
李 光 魯	李 肯 珪	李 敏 燮
鄭 東 鎬	鄭 昌 和	趙 榮 藏
金 泳 鎮	辛 基 夏	李 海 瓚
趙 贊 衡	趙 洪 奎	崔 鳳 九
金 光 一	朴 泰 權	吳 景 義
李 仁 濟	張 石 和	金 文 元
金 仁 坤	玉 濟 鎬	朴 燦 鍾

○委員아닌出席議員

金 潤 煥 張 慶 宇 朴 英 淑  
鄭 大 哲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陳 在 勳  
立 法 審 議 官 金 永 善

○出席證人

金 玉 吉	(前文教部長官)
<u>柳 炳 賢</u>	(前合參議長)
崔 雄	(前第11空輸旅團長)
權 承 萬	(前第7空輸旅團33大隊長)